

6. 15공동선언의 기치아래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 통일을 앞당기자!

##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 새로 건설한 어분사료공장과 금산포젓갈가공공장, 금산포수산사업소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인민군대에서 새로 건설한 어분사료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공장의 결만 보고서도 잡도리를 단단히 하고 품을 들인것이 알린다고 하시면서 양어를 발전시킬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과 당정책 관철에서 인민군대의 투쟁 기풍과 투쟁본태를 다시금 보여주었다고 대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전경도앞에서 해설을 들으신 다음 공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생산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공장에서 건뎡이, 까나리, 멸치, 도루메기 등을 가지고 철갑상어사

료, 칠색송어사료, 룡정어사료를 비롯한 각종 어분사료들을 생산하고있는것은 좋은 일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공장에서 생산하고있는 어분사료가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사료와 대비해보아도 짝지지 않는다고 하는데 물고기먹이도 품질이 철저히 담보되어야 한다고 하시였다.

인민군대가 물고기먹이생산의 국산화를 실현하는데서 앞장에 섰다고 하시면서 어분사료공장이 일떠선 결과 우리가 생산한 어분사료를 가지고 각종 물고기를 대대적으로 기를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나라의 양어를 발전시키는데서 새로 건설한 어분사료공장이 맡고있는 임무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공장앞에 나서는 파업들을 제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어분사



료공장을 일떠세운 조선인민군 제810군부대는 지난 기간 나라의 양어를 발전시키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고 높이 평가하시면서 앞으로도 선구자의 기치를 들고나가라고 고무격려해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양어를 더욱 발전시켜 군인들과 인민들에게 사철 신선한 물고기를 공급해주자는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이라고 하시면서 공장의 종업원들이 자기들앞에 맡겨진 본분을 다해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었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금산포젓갈가공공장 건설장과 금산포수산사업소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건설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공사정형을 료해하시었고 젓갈가공공장과 수산사업소를 훌륭히 일떠세우는데서 나서는 파업과 방

도를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젓갈가공공장과 수산사업소를 능급도에 일떠세우기로 결심하기를 정말 잘했다고, 락도로만 보았던 곳을 현지에서 보니 불수록 멋있는 자리라고 하시면서 머지않아 일떠서게 될 공장의 이름을 《금산포젓갈가공공장》, 《금산포수산사업소》로 명명하자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금산포젓갈가공공장과 금산포수산사업소가 일떠서게 되면 우리 군인들과 인민들에게 맛 좋고 영양가 높은 젓갈품을 공급해주시려고 마음쓰시던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관철할수 있게 된다고, 그래서 당에서는 이 대상을 중요하게 보고 지난번 당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건설문제를 토의 결정하였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이곳을

공해가 전혀 없는 해양생태학적으로 아주 좋은 곳이라고 하시면서 공업적인 방법으로 젓갈가공을 하는 우리 식의 공장이 우리의 힘과 기술로 건설되어 군인들과 인민들에게 맛 좋은 젓갈품을 안겨주게 될것이라고 생각하니 벌써부터 마음이 호호해진다고 못내 만족해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금산포젓갈가공공장과 금산포수산사업소는 당에서 단단히 마음먹은 건설대상이라고, 그래서 인민군대에 맡기였다고,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만 한 공장으로 회한하게 일떠세워 금산포지구를 완전히 일신시키자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인민이라는 성스러운 이름이 붙어있는 인민

군대가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심장깊이 새겨안고 우리 인민들을 위하여 좋은 일을 또 하나 하자고, 금산포젓갈가공공장과 금산포수산사업소를 훌륭히 건설하여 인민들에게 선물로 안겨주자고 호소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금산포젓갈가공공장과 금산포수산사업소건설을 정해진 날자에 최상의 질적수준에서 끝낼수 있도록 건설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현지에서 몸소 풀어주시는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의 기수, 돌격대인 인민군대가 조선로동당창건 일흔돛까지 공사를 무조건 훌륭히 완공함으로써 인민군대의 전투력을 온 세상에 다시한번 과시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본사기자

##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 제7차 전국체육인대회 참가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제7차 전국체육인대회 참가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촬영장에 나오시자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터져올랐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열광의 환호에 답례하시며 당과 인민의 기대에 보답하겠다는 불타는 일념을 안고 세계선수권대회와 아시아경기대회를 비롯한 국제경기들마다에서 많은 금메달을 쟁취함

으로써 주체조선의 기상과 위력을 온 세상에 과시하고 천만군민에게 커다란 민족적공지와 자부심을 안겨주었으며 새로운 기적과 위훈창조로 힘있게 고무추동한 대회참가자들과 전체 체육인들에게 따듯한 인사를 보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제7차 전국체육인대회는 나라의 체육발전에 쌓아올리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이며 당의 체육강국건설구상을 실현하는데서 전환적

국면을 열어놓는 중요한 계기로 된다고 하시면서 대회를 성과적으로 진행한 참가자들을 열렬히 축하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금메달로 조국의 존엄과 영예를 만방에 떨치고 값높은 자욱을 뚜렷이 아로새긴 체육인들은 우리 당과 조국, 인민이 기억하는 체육영웅, 참된 애국자들과고 하시면서 대회참가자들의 위훈을 거듭 높이 평가하시었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기념촬영이 끝나자 또다시 《만세!》의 환호와 《김정은 결사옹위!》 구호의 함성이 터져올라 장내를 진감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따듯이 손을 저어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참가자들이 이번 대회를 계기로 체육강국건설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오도록 함으로써 조국과 인민의 기대에 훌륭히 보답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본사기자



# 버섯 향기, 인민 생활의 향기

지난 정초 자기 모습을 드러낸 평양시버섯공장이 생산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고있다.

생산을 시작하지 불과 몇달이 안되었지만 수백톤의 버섯을 생산하여 평양육아원, 애육원의 원아들을 비롯한 평양시민들에게 공급하고있다.

사동구역 송신지구에 위치한 공장은 부지면적이 2만 4800여㎡, 연건축면적이 9560여㎡로서 기본생산건물과 공룡식 야외재배호동들이 400여그루의 과일나무들속에 휩싸여 한 폭의 그림을 방불케 하고있다. 생산공정이 공업적이고 집약화 수준이 높을뿐아니라 버섯기르기에 필요한 모든 조건들이 충분히 갖추어졌다.

버섯기질성형공정, 버섯무균공정, 버섯재배공정 등 원료투입으로부터 출하에 이르는 생산공정의 통합생산체계는 물론 기업관리의 경영정보체계가 완벽하게 구축되어있다. 공정별에 따르는 측정값, 설정값, 설비가동상태 등 각종 생산정보들이 컴퓨터로 감시조종되게 되어있다.

특히 내열성수지병에 의한 버섯재배방법을 도입성공시킴으로써 실리를 보장하고 종균,

접종, 재배에 이르는 생산공정의 무균화, 무진화를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면서도 버섯을 공업적방법으로 대량생산하게 되어있다.

흔히 버섯은 주로 숲속 그늘진 땅이나 죽은 나무, 이끼 낀 바위썩, 습지 같은데 돌아오는 식물로서 단백질과 합수탄소, 지방 등이 많아 질 좋은 부식물로 사람들이 널리 리용하여왔다. 사람들의 식생활에서 버섯의 리용가치가 높아지면서 야생버섯을 적극 따들이는 것과 함께 버섯을 많이 재배하여왔다.

그러나 버섯은 계절과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 생육조건과 생태환경을 잘 마련해주지 못하면 재배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하여 공룡식버섯재배장을 만들어놓고 재배를 제한된 범위내에서 진행하여왔다.

평양시버섯공장에서 버섯을 공업적방법으로 대량생산할 수 있게 된것은 인민들의 식생활을 하루빨리 높이기 위한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정

력적이고도 현명한 명도를 떠나 생각할수 없다.

두해전 7월에 어느 한 군부대에서 건설한 버섯공장을 돌아보시면서 버섯생산을 늘이자면 균을 공업적으로 생산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런 버섯 공장들을 나라의 이르는 곳마다에 건설하여 우리 나라를 버섯의 나라로 만들어야 한다고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고 하신 원수님이다.

버섯재배를 인민들의 식생활향상을 위한 중요한 문제로 내세우신 그이께서는 지난해 6월 평양에 있는 장천남새전문협동농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평양시에서 건설하는 버섯공장을 본보기공장으로 건설하도록 할데 대해 강조하시였다.

그리고 공장이 완공되었을 때에는 현지를 찾으시고 공장을 산뜻하고 멋있게 잘 지었다고, 생산건물과 주변환경이 깨끗하다고, 걸만 보고서도 들려보고싶은 공장이라고 높이 평가하시였다.

그날 공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못내 만족해하시면서 과학자, 기술자들과 공장생산자들의 수고를 헤아리시였다. 그러시면서 우리 나라를 버섯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 각 도, 시, 군들에서도 평양시버섯공장과 같은 현대적인 버섯생산기지를 훌륭히 일떠세우며 생산과 경영 활동을 짜고들어 인민들이 실지 덕을 보게 해야 한다고 하시였다.

인민들의 먹는 문제, 식생활 수준을 하루빨리 개선하는것을 더는 미룰수 없는 중요과업의 하나로 내세우시고 인민들의 식생활향상과 직결된 단위들을 찾으실 때마다 중산의 동음을 높이 울려 인민들의 식생활을 개선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자고 당부하시느 원수님이시다.

나에게는 장군님께서 말하고 가신 우리 인민이 장군님의 영상으로 안겨온다고, 나는 장군님을 모시듯이 우리 인민을 받들고 인민을 위하여 일

을 잘해나가겠다는 생각뿐이라고 하신 원수님께서는 인민들의 식생활개선에 이바지하는 공장들을 찾으실 때 제일 기뻐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새로 건설한 버섯공장을 돌아보시면서도 새해벽두에 인민들을 위해 마련된 희한한 창조물을 보니 정말 기분이 좋다고, 1년 365일이 이런 날들로 이어지면 얼마나 좋겠는가고 하시며 당정책을 실천으로 받아들이는 단위들을 찾을 때면 일군들과 종업원들을 업어주고싶은 심정이라고 하시였다.

모든 사업에서 성과의 비결은 당정책을 결사관철하려는 일군들의 정신력에 전적으로 달려있다고 하시면서 모든 부

문, 모든 단위의 일군들이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이라는 당의 구호를 좌우명으로 삼고 자신과 함께 걸린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감으로써 뜻깊은 올해에 인민생활향상에서 전변을 가져오자고 호소하시고 금집체육인종합식료공장, 류원신발공장, 원산구두공장, 평양화학제품공장, 5월 27일수산산업소건설장을 비롯한 인민생활향상과 직결된 단위들을 찾고 찾으시며 생산장성의 힘과 용기를 안겨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

이렇듯 인민들에게 보다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안겨주시려 불철주야의 현지지도의 길을 걷고계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뜨거운 인민사랑이 있어 공화국은 버섯의 나라로, 인민들의 식탁에는 버섯 향기가 넘쳐나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주일봉



## 김정일장군의 인간적 품모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은 한없이 소탈한분이시였다.

그이께서는 언제나 인민들과 한데 어울리시며 그들과 생사고락을 같이 한 인민의 아버지이시였다.

주체60(1971)년 5월 12일 평안남도 청산벌에서 있는 일이다.

모내기가 한창인 전야를 찾으신 장군님께서는 농사일을 도우러 벌에 나온 예술인들을 만나시였다.

얼굴에 흙물이 튀긴 한 녀성에 술인을 보시고 호탕하게 웃으시며 분장을 한 동무들을 보러온것이 아니라 일하는 동무들을 보고 싶어서 왔다고 하신 그이께서는 신을 벗고 바지가랭이를 걷어올리시고는 갈매흙이 무릎을 치는 논판에 들어서시였다. 그이께서는 의아해하는 그들에게 자신께서도 모내기하는 곳에 나온것만큼 모를 좀 꽃아보겠다고 하시며 모를 꽃기 시작하시였다. 나라의 농업발전을 위해 농민들과 어울려 벼모를 내시는 그이의 모습에서 사람들은 인민적정품을 지니신 장군님의 위인상에 감동을 금치 못해하였다.

언제인가 어느 한 배아령공장을 찾으시여서는 몸소 기름묻은 배아령환을 드시고 배아령분할 작업을 하시며 처녀조립공의 수고도 헤아려주시였으며 량강도 대홍단군의 농장원부부의 집을 찾으시여서는 태여날 아기의 이름을 지어달라는 청탁도 흔쾌히 들어주신 장군님이시였다.

그이의 소탈하신 인품은 남녘의 동포들에게도 잘 알려져있다.

## 한없이 수줍은 장군님

2000년 6월 북남수뇌상봉때 있는 일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목관관련회장에서 북남공동선언이 합의되었다는것을 선포하시고 김대중 대통령의 손을 잡고 높이 쳐드셨다. 박수갈채가 터져오르는 때에 남측기자들이 북남수뇌분들이 손을 맞잡아올린 장면을 렌즈에 담지 못한 아쉬움을 달래지 못하고 있었다. 북남공동선언합의를 선포하신 장면을 재현해주시었으면 하는 그들의 청을 받으신 장군님께서 호탕하게 웃으시며 남측수뇌분에게 《그러면 우리 배우노릇을 한번 더 합시다.》라고 하시고는 흔연히 처음대로 남측당국자의 손을 잡고 높이 쳐드셨다.

촬영이 끝나자 그이께서는 우리가 《배우》노릇을 하였으니 이제는 《출연료》를 받아야 하겠다고 하시며 만면에 환한 미소를 지으시였다.

언젠가 평양에 와서 그이를 만나뵈고 그이와 함께 오찬에 참석하였던 문명자재미동포인론인은 식탁우에 놓여있는 감자만두튀기, 김치무우장, 잣죽, 녹두묵 등 각종 요리들을 하나하나 권하시며 몸소 콩나물김치만드는 방법까지 손수 알려주시는 소탈하신 인품에 감동되어 이렇게 토로했다.

《김정일국방위원장님은 강하먼서도 소탈한분이시였고 지난 1992년과 1993년 두차례에 걸쳐 접견해주시었던 위대한 수령님의 모습 그대로였다.》

본사기자 리경순

주체72(1983)년 3월 어느 날이었다. 그날 일군들과 자리를 함께 하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인민 생활에 깊은 관심을 돌리도록 할데 대해 강조하시면서 우리 당은 인민생활을 높이는것을 자기 활동의 최고원칙으로 내세우고 인민생활향상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려왔으며 혁명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인민생활을 높이기 위한 방도를 다 제시하였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계속하시였다.

인민생활을 높이는데서 가장 중요한것은 먹는 문제를 원만히 푸는것이다. 수령님께서 여러번 교시하시였지만 옷이나 집 같은것은 없어도 좀 참을수 있지만 배고픈것과는 타협할수 없다. ... 그러시고는 부식물을 비

수령님께서 여러번 교시하시였지만 옷이나 집 같은것은 없어도 좀 참을수 있지만 배고픈것과는 타협할수 없다. ... 그러시고는 부식물을 비

## 송고한 인민사랑의 화폭을 펼치며 돈벌이가 아니라 인민을 위한 일

롯한 여러가지 식료품을 많이 팔아주면 인민들의 식생활을 더욱 윤택하게 할수 있다고 하시면서 그 무렵 새로 내은 평양의 한 수산물상점운영정형에 대하여 이야기하시였다.

그 상점으로 말하면 장군님의 관심속에 생겨나 동해와 서해의 포구들에서 잡은 이면수, 가재미, 문어, 삼치 등 신선한 물고기

를 제때에 날라다 수오

자들에게 파는 물고기상점으로 늘 시민들로 붐비고 있었다.

상점의 봉사실태를 헤아리신 장군님께서는 그 상점을 내은것은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고 하시면서

서 무슨 일을 하나 하여도 인민을 위한 일을 하여야 한다고, 일군들이 인민을 위한 일을 많이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그러시면서 그런 상점을 더 내오도록 할데 대해 이르시였다.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민을 위한 일, 사회주의사업의 본성에 맞게 일을 잘하여 인민들에게 풍성한 물고기반찬이 차려지도록 하시려는 송고한 사랑과 보살핌이 담겨져있는것이였다.

본사기자

## 청소년학생들에게 돌려지는 국가적배려

얼마 있으면 전국의 소학교, 초고급중학교들과 전문학교, 대학 학생들에게 새로운 형태의 맛있는 교복이 공급되게 된다.

사계절에 어울리는 옷과 함께 소학교 신입생들에게는 배낭식가방과 신발이 포함된다. 나라의 수백만 학생들에게 국가부담으로 교복을 보장하는것은 사실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적대세력의 제재와 봉쇄책동으로 인한 경제적난관과 지

금남조선에서 벌어지고있는 핵전쟁연습으로 격화되는 조전반도의 정세를 놓고보아도 더욱 그러하다. 학생들을 위한 아낌없는 투자와 시책은 후대사랑의 정치가 펼쳐지는 공화국에서만 펼

쳐질수 있는 현실이다. 송고한 조국관, 후대관을 지니시고 미래사랑의 력사를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학생들에게 교복을 만들어 입힐것을 발기하셨고 몸소 그 견본도 일일이 보시고 생산과 보장에 필요한 모든 실천적조치를 다 취해주시였다.

지난해 12월 김정숙평양방직공장을 찾으신 그이께서는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학생교복생산과 공급문제를 대단히 중시하시고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셨다고 하시면서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아무리 어려워도 죽어나사나 무조건 해결해야 할 문제, 우리 당

이 일관하게 견지해오고있으며 중대사로 내세우고있는 학생교복문제를 푸는데서 한몫 단단히 해야 한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교복과 신발, 학용품, 가방문제를 자신께서 전적으로 맡아 푸시겠다고 하시면서 공장에서 학생가방용천생산에 필요한 기술공정을 꾸리기 위한 사업도 동시에 밀고나가야 한다고 그 방도도 가르쳐주시였다. 하여 다가오는 새 학년도 새 학기를 앞두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과 은정이 깃든 교복이 학생들에게 공급되게 되는것이다. 이것이 후대사랑이 활짝 꽃피어나고있는 공화국의 현실이며 자본주의

가 가질수도, 흉내낼수도 없는 사회주의교육중시정책의 생활력의 뚜렷한 증시이다.

교육을 증시하며 후대들을 위해서는 그 무엇도 아끼지 않는 공화국에서는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 육류아동병원, 평양애육원, 육아원과 같은 아이들의 궁전이 일떠서고 이제 또 전국의 모든 학생들에게 한낱한시에 새 교복이 공급되는 사랑의 화폭이 펼쳐질것이다. 이런 일은 나라가 돈이 많아 되는것도 아니다. 정치가 인민을 위한 정치이고 후대들을 위한 정치여야 아이들의 행복의 웃음소리도 날로 더 높아가게 되는것이다.

본사기자 김철진



정론

# 백두산총대는 미제의 종말을 선언한다

정의와 불의, 선과 악의 세기적대결이 벌어지고있다.

《전략적인내》를 떠들던 악의 제국의 우두머리가 마침내 그 누구의 《붕괴》 망언을 씨벌이며 독이발을 드러냈다.

미국과 괴뢰호전광들이 미친듯이 뿔어대는 북침핵전쟁소동의 화염으로 일촉즉발의 불구름이 조선반도에 밀려오고있다.

정의와 진리, 선의 상징인 조선을 반대하여 온갖 불의와 악의 집결체인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이리떼처럼 달려들고있다.

악의 때우리를 맞아 정의의 조선이 나섰다.

민족의 운명, 인류의 전도와 금후 세계의 향방을 결정짓는, 이 행성의 대지각변동을 가져올 최후대결전이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세계는 우리가 어떻게 제국주의자들과 그 추종세력들의 반공화국암살책동을 짓부시고 이 땅위에 사회주의강성국가를 일떠세우는가를 똑똑히 보게 될 것입니다.》

서방의 한 유력신문은 《대적과 맞붙은 최후대전》이라는 제목아래 다음과 같이 썼다.

《가장 반미적인 나라인 조선은 핵보유국이 되었으며 핵능력을 나날이 증대시키고있다. 그러나 행성을 유일 지배체계에 두려고 하는 미국은 이를 허용하지 않으려 한다. 조선과 미국의 충돌은 지구에 아마게돈급의 대전동을 일으킬것이다.》

선과 악의 최후대결전, 인류의 전멸, 세계의 종말을 가져올 대사건을 상징하는 《아마게돈》이라는 용어는 미국이 멸망하든 지구가 깨어지든 결론이 나아만 하는 조미대결의 어마어마한 양상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다.

그렇다. 조미대결은 분명 엄청난 재앙을 일으킬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공멸의 재앙이 아니라 악의 제국 미국에 내리는 천벌 일것이다.

하늘땅이 노호하고 바다가 끓어번진다. 평음을 울리며 수천수만발의 각종 전략 및 전술로켓들과 대구경방사포탄들이 하늘을 썰며 무더기로 날아가 적아성과 적진을 불마당질한다.

망망대해를 스칠듯 날다가 불쑥 솟구쳐오른 우리의 비행대들과 만리대양 수중을 헤가르는 잠수함대들의 공격에 급소를 얻어맞아 변태적인 동물과 같은 적항공모함들이 피성을 도하며 수장되고 구축함이니, 초계함이니, 상륙함이니 하는 함선들이 모조리 녹아난다.

하늘에서 우박처럼 쏟아져내린 영웅한 우리 호랑이병사들이 적의 심장부와 전략적요충지들을 중형무진 짓이겨댄다. 서해에 점점이 놓여있는 적들의 섬들이 사정없이 퍼부어지는 불벼락으로 아예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다. 저 멀리 대양너머 백악관과 펜타곤, 미태평양사령부, 하와이, 괌도 등의 미군사기지에서 화염이 무섭게 타래쳐오른다.

대아메리카합중국 미국이라는 나라가 피를 토하며 울부짖고 몸부림치며 통째로 무너져 종말을 고한다.

이것은 결코 어느 전쟁물영화의 장면들이 아니다. 적들이 감히 움쩍하기만 한다면 무자비한 타격으로 미국본토든 태평양상이든 그 어디든 적진을 초토화해버릴수 있게 준비된 우리 군대의 무적필승의 위력을 과시하는 실제훈련광경이다.

미국은 등골이 서늘하게 통감할것이다. 위대한 천출명장을 모시고 진행한 우리 군대의 실전을 방불케 하는 타

격훈련들이 결코 보통의 군사훈련이 아니라 대사변을 예고하는 천둥번개와 같은 력사의 선언이라는것을.

오늘의 반미대결전에는 선군조선의 세기적결단이 비껴있다.

조선의 결단, 그것은 단순히 미국의 침략에 대항하자는것이 아니라 악마의 총본산을 지구상에서 영영 종말시키겠다는것이다.

선군의 장점으로 인류의 악성종양 미국을 도려내고 푸른 지구에서 침략의 핵구름을 영영 걷어내자는 것이다.

조선은 비록 땅덩어리는 크지 않아도 미국이라는 재앙덩어리를 폭파해버릴 힘을 무진장하게 응축하고있다.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약탈하고 타민족을 죽이고 억압하며 여직껏 가해자로만 날치던 미국이 이제는 제땅, 제 집에서 처참하게 얻어맞아야 한다.

미국은 정의와 평화를 위하여, 인류를 위하여 이 행성에서 사라져야 한다.

장장 70년세월이나 이 땅을 갈라놓고 남조선을 타고앉아 우리 민족에게 헤아릴수 없는 재난과 희생과 눈물을 강요하였으며 지구상 곳곳에 흡혈귀의 마수를 뻗치고 수십억 인류의 피를 빨아먹으며 비대한진 미제, 미국이라는 흉물이 더이상 존재해가지고서는 조선이 하나로 될수 없고 지구가 편안할수 없고 인류가 행복할수 없기에 우리는 결단코 미국에 종말을 선고한다.

대대손손 사무친 민족의 원한을 풀고 지구상에서 미제의 침략과 억압의 죄사슬을 걷어내기 위해 선군조선이 반미최후결전에 나섰다.

미제에게 죽음을! 백두의 칼바람이 폭풍친다. 반세기이상 허리띠를 조이고 사랑알보다 총알을 먼저 만들어 재우며 언제든지 한번은 미제와 결판을 보고야말리라며 다지고다쳐온 그 마지막관가리시각이, 우리 병사들이 멸적의 훈련장마다에 백두의 훈련열풍을 일으키며 옥옥 버려온 최후결전의 그 시각이 바야호로 닥쳐왔다고 백두산이 소리쳐 웨친다.

미국의 종말, 선군조선의 이 선고에는 백두산장군의 억척같은 의지가 무한대의 무게로 실려있다.

시대는 조선반도의 분렬과 대결의 력사를 종식시키고 통일과 번영의 대동로를 열어주며 이 행성에 전쟁의 검은구름 가시고 평화로운 푸른 하늘을 열어줄 절대적힘의 강자, 미국 괴물을 번쩍 들어 지구밖으로 내던질 영웅을 요청하였다.

김정은장군! 그 존함 한번 외우면 무적의 용맹이 솟고 그 모습 한번 비오면 필승의 기개 온몸에 넘쳐난다.

퇴성벽력이 울고 하늘땅이 뒤바뀐다 해도 눈섭 하나 까딱하지 않으며 천만대적이 덤벼들어도 개미떼만큼이나 여기서는 천하제일배짱가, 기나긴 인류의 전쟁사와 고금동서의 병법을 환히 꿰드시고 현대전에 완전정통하신 회세의 군사전략가,

침략과 도발에 관용을 모르고 불의를 용서치 않으며 결심이 단호하고 타격이 무자비하신 공격형의 령장, 조선인민의 백년속적 미제를 중국적으로 파멸시킬 결단으로 우리 식의 필승의 전법을 틀어쥐신채 최후명령 하나만을 남겨두고계시는 백승의 장군,

위대한 령장께서 하늘이 번쩍 들리도록 환히 웃으신다. 적진을 들부시는 우리 혁명무력의 불소나기를 보시며 호탕하게 터치시는 그 웃음소리는 지동치며 제국주의 때무리들을 마가물가랑이처럼 휩쓸어 력사의 쓰레기통에 처박는 백두산폭풍이다.

그렇다. 우리의 김정은장군은 불의를 징벌하고 어지러운 세상을 정리하며 인류에게 영원한 평화를 가져다줄 하늘이 낸 전설적령장이시다.

— 적진을 아예 벌초해버리라. — 항복서에 도장을 찍을 놈도 없게 모조리 쓸어버리라.

— 미제가 아직까지 맛보지 못한 무서운 공포와 전율, 쓰디쓴 참패를 우리와의 전쟁을 통해 저들의 땅덩어리에서 맛보게 하라.

— 우리 군대와 인민의 정의의 위업에 도전해나서는자들은 그가 누구든 최후종말을 면치 못할것이다.

최고사령부의 작전대우에는 위대한 령장께서 이미 최중수표해놓으신 반미대전작전도가 있다.

무엇을 결심하시였고 어디로 화살표를 그으시였는가. 침략자들의 생사와 존망은 이미 결정되어있고 폭풍전야의 초침소리는 도발자들의 귀전을 때린다.

력사가 일찌기 보지 못했고 알지 못하는 전설적인 천출명장의 출현과 파감무쌍한 행보에 미국이 어쩔줄 몰라하고있다.

미국의 《헤리티지재단》, 《브루킹스연구소》, 《미국국제전략문제연구소》를 비롯한 두뇌집단들이 제출하는 보고서들에서, 국회청문회장들에서 울려나오는 아우성을 들어보라.

《미국의 체면으로 북의 요구에 굴복할수도 없으며 그렇다고 전쟁도 할수 없는 상황이다.》

《김정은정권이 들어선 후 기존의 행동원칙은 더이상 작동하지 않는다. 이제는 과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북을 대해야 한다.》

《북의 핵보유를 막겠다는 목표는 실패했다. 북은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서 보복적핵타격능력을 가일층 확보하고있다.》

《북의 이동식대륙간탄도미사일과 잠수함발사미사일은 언제 어디서 출몰하는지 알수 없어 선제타격이 불가능하다.》

《북의 핵과 미사일, 사이버전능력이 조선반도는 물론 미국본토에도 실질적위협이 되고있다. 이것은 미군사기지와 미국령토를 취약하게 만든다.》

《시간은 미국이나 남조선편이 아니다.》

이것은 미국이 수십년간 방대한 두뇌진을 동원하여 품어들어 작성완성한

《작전계획 5027》이니, 《5029》니, 《5030》이니 하는 전쟁계획들이 휴지통에 처박히게 되고 《키 리졸브》니, 《독수리》니, 《울지 프리덤 가디언》이니 하는 전쟁연습들이 철부지들의 군사놀이보다 못한 한갓 장난으로 되었다는 탄식이다.

예측할수 없는 시간과 장소에서, 어디로부터 무엇이 날아오는지 탐측할수도 없고 기습적타격방식이 하도 신출귀몰하고 비대칭적이어서 그에 대응할 방안을 시도하는 자체가 무의미하게 되었고 매리는대로 얻어맞고 멸망하게 되었다는 비명이다.

인디안의 해골더미우에 나라를 세울 때부터 다른 나라와 민족의 피를 먹어야만 살아가게끔 체질이 형성된 날강도식인종인 미국은 죽을 때까지 침략과 살륙의 본성을 버리지 못할 것이다.

우리의 공화국을 군사적으로 압살하고 인권소동같은것으로 체제를 전복해보려는 책동에 계속 매달리는것이 저들의 목에 걸린 울가미를 더 바짝 조이는 어리석은짓인줄을 뻔히 알면서도 버둥거리며 거기에 더욱 매달릴수밖에 없는 미국에는 승통이 아예 끊어지는 종말외에 다른 출로란 없다.

미국은 아직 우리의 핵과 미사일보다 더 무서운것을 다 알지 못하고있다.

우리의 김정은 장군과 인민의 사상정신력이 바로 그것이다.

우리가 과시한 각종 타격수단들은 물론 아직 세상에 공개하지 않은 무기들의 기절초풍할 위력에 수령옹위의 총폭탄으로 만장약된 천만군민의 사상정신력까지 더해보라.

이 두 위력을 합치며 핵융합반응보다 더 강력한 천문학적폭발력을 장진하고있는것이 바로 백두의 혁명무력이며 조선의 막강한 힘이다.

전쟁을 핵항공모함과 전략폭격기, 핵잠수함, 핵미사일과 같은 전쟁기체들의 대결로만 아는 미국은 그 어떤 최첨단정탐기구로도 관측할수 없고 물리적수치로도 측정할수 없는 선군조선의 이 힘, 우리 군대와 인민의 사상정신력을 숨이 끊어지는 마지막 시각까지 리해하지 못할것이다.

불속에 뛰어들어 절세위인들의 초상화를 모셔내오고 한목숨 서슴없이 바쳐 구호나무를 구원하는 사람들, 동지들을 위하여 터지는 수류탄도 몸으로 덮고 봉락된 갱속에 며칠씩 갇혀서도 수령호모의 노래 부르며 착암기를 돌리는 사람들이 우리 병사들이고 인민들이다.

이런 인간들이 결전의 시각에 당파수령을 위하여 어떻게 불사신처럼 싸우겠는가는 두말할 필요가 없다.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는 피와 목숨을 아낌없이 내대고 지킬 한없이 고귀하고 위대한것이 가슴깊이 간직되어있다.

사랑과 정으로 한피줄을 이은 어버이품, 정의로운 사상과 위업, 인민을 하늘로 떠받드는 제도, 영원한 태양의 축복속에 끝없이 번영할 조국의 미래...

꿈결에도 뵈고싶던 경애하는 원수님을 최전방초소에서, 추격기활

주로에서, 바다바람세찬 함선우에서, 당중앙위원회청사에서 꿈같이 만나뵈고 그이와 팔을 끼고 어깨를 걸고 영광의 기념사진을 찍으며 그이의 사랑을 자기의 피와 살로 만들고 그이의 증오를 총대마다 화약으로 재운 우리 병사들이다.

관가리결전의 시각에 《김정은장군 만세!》를 높이 부르며 육탄으로 적진에 날아들어 영생의 꽃보라로 흘날리는 값높은 최후를 우리 병사들은 영광이라 노래한다.

도발의 불꽃 한점만 튀어도 벼락같이 달려나가 백여년동안 민족의 가슴에 쌓이고 쌓였던 원한과 분노를 포탄과 총탄과 총창에 담아 후련하게 터뜨릴 보복의 그 시각을 우리 병사들이 기다리고있다.

떨러져 팔려 전장에 끌려와 포로가 되고 병신이 되어도 죽지만 갓게 해달라고 가슴에 십자가를 긋는 미국의 고용병들이 감히 우리의 일당백용사들과 견줄수 있겠는가.

전시작전지휘권을 넘겨받지 않겠다고 생떼를 쓰며 점령군에게 해마다 천문학적인 유지비를 꼭꼭 섬겨바치는 괴뢰들, 썩어빠진 군기와 염전사상에 물젖어 제살굴리만 하는 미국의 총알받이에 불과한 오합지졸의 무리 괴뢰군마파는 더구나 우리와 상대가 안된다.

이 시각도 《키 리졸브》, 《독수리》 전쟁연습의 명목으로 방대한 침략무력을 끌어다놓고 《핵선제타격》이니, 《평양점령》이니 하는 열빠진 망상에 매달리는 물몰이 가소롭기 짝이 없다.

원수들이 날뛰지 말라. 백두산총대앞에서 함부로 너덜거리며 즐망스럽게 놀아대지 말라.

우리의 위력한 타격수단들이 멸적의 용암을 장약하고 너희들의 도발원점들과 전초기지, 발진기지들은 물론 침략의 아성을 조준경안에 잡아넣고 발사순간만을 분분초초 기다리고있다.

정전협정이 이미 휴지장으로 되어 버리고 불과 불, 핵과 핵의 대결만이 남았으니 너희들의 안전을 담보해줄 장치는 더는 없으며 지구의 어느 구석에서도 피난처를 찾아낼수 없다.

정의의 징벌권리가 당당한 백두산총대의 침략자, 도발자들이 움쩍하기만 하면 그 어디에도 구속됨이 없이, 그 무슨 경고나 사전통고없이 즉시적으로 무자비한 보복타격을 가할것이며 진짜전쟁맛이 어떤것인지 톡톡히 보여줄것이다.

그것도 이 땅에서가 아니라 침략의 본거지인 미국본토에서 최후결전을 승리적으로 필승하게 될것이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우리의 혁명시인 조기천은 세계의 정직한 사람들이여 지도를 펼치라, 싸우는 조선을 찾으라, 그러나 재더미만 남은 이 땅에서 거리와 마을은 찾지 말라고 하였다.

이제 반미대전이 터진다면 우리 시인들은 세계여 지도를 펼치라, 악의 소굴 미국을 찾으라, 그러나 정의의 징벌에 초토화된 그 땅에서 최악의 백악관과 펜타곤은 더 찾지 말라고 세기적원한을 한껏 풀며 승리자의 긍지드높이 웨치게 되리라.

세상사람들은 《미국을 발견한것은 좋았으나 발견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것이다.》라는 그 누구의 명언을 현실로 만들어준 선군조선에 감사를 드리게 되리라.

최후승리가 눈앞에 보인다. 삼천리조국강산에서 승리의 축포가 오르고 대양 건너 아메리카땅에서 미제의 장송곡이 울리는 속에 반미대전의 최후승리자들이 발밑에 나딩구는 성조기를 짓밟으며 척척 척 위대한 전승의 열병식을 보무당당히 거행할 그 날이 다가오고있다.

전성호





조선반도에서 긴장이 최대  
로 격화되고있는 요즘 인공  
위성으로 북과 남의 동해기  
습을 내려다보면 대조되는 두  
현상을 포착할수 있다. 북과  
남에서 병력의 움직임이다.

# 평화적건설과 북침전쟁연습

이 오늘 또다시 대규모상륙작  
전으로 공화국을 침략하고 류  
현창국을 되풀이하려 하고있는  
것이다.

《북조선붕괴》를 떠드는 미  
국의 북, 해, 공군타격집단들  
과 수많은 남조선군병력의 참  
가말에 벌어지는 연합상륙훈련  
이 어느 순간에 실전으로 넘어  
갈지 모를 이 시각 제2의 조선  
전쟁은 가상이 아니라 엄연한  
현실로 박두해오고있다.

민족분열 70년이 되는 올해  
에 전쟁연습을 그만두고 관계  
개선을 이루어나가는 공화  
국의 평화적호소에도 불구하고  
전쟁연습의 포성을 울리며  
대규모연합상륙훈련을 위해 포  
항으로 밀려드는 미군과 남조  
선군.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를 첨  
예한 정세속에서도 전선에서  
강력한 역량을 뚝 떼내어 인  
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수산  
사업소건설장으로 파견하는 공  
화국.

한지맥으로 잇닿은 동해기습  
에 펼쳐진 너무도 판이한 두  
현실이다. 진정 조선반도에서  
평화를 바라는것은 누구이고  
전쟁을 추구하고있는것은 파  
연 누구인가.

본사기자 홍범식

무슨 목적으로, 어디로 가는  
것일가?

## 5월27일수산사업소건설장에서는

여기는 공화국의 동해안에  
위치한 5월27일수산사업소건  
설장. 지금 이곳으로는 조선인  
민군 대련합부대들에서 수많은  
인원과 기체들이 기동전개되고  
있다. 하지만 군인들의 손에  
켜어진것은 전투기술기체가 아  
니라 건설공사에 필요한 각종  
기공구들이다. 전선으로 행하  
여야 할 군인들이 어찌하여 평  
화적목적의 수산사업소건설장  
으로 가고있는것인가? 거기  
에는 이런 사연이 깃들여있다.

지난 3월 중순 경에 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동해지구  
일떠서고있는 5월27일수산사  
업소건설장을 찾으셨었다. 이  
수산사업소는 황금해의 새 력  
사를 창조해가고있는 공화국  
에서 처음으로 건설되는 현대  
적인 원양수산사업소이다.

이날 경에하는 원수님께서

불도가니마냥 부글부글 끓어번  
지는 수산사업소건설장을 돌아  
보시면서 수산업을 결정적으로  
추켜세우는것이 인민들의 식생  
활을 더욱 유족하게 하기 위  
한 중요한 사업이기때문에 국  
가방위와 관련한 중대한 전략  
적문제들을 토의하는 조선로동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  
에서 5월27일수산사업소건설과  
관련된 문제를 토의결정하였  
다고, 수산사업소건설을 당에  
서 정해준 날자에 최상의 질적  
수준에서 끝내기 위해서는 건  
설력량을 더 증강해야 한다고,  
조선인민군 대련합부대들  
에서 강력한 건설력량을 편성하  
여 현지에 파견할데 대한 조선  
인민군 최고사령관명령을 하달  
하셨다고 말씀하시였다. 이  
렇게 되어 이루어진 대련합부  
대에서의 긴급기동전개였다.

동해에서만이 아니다. 서해  
문, 안변청년발전소, 평양-원  
산관광도로, 문수물놀이장,  
미림승마구락부, 김책공업종합  
대학 교육자살림집, 위성과학  
자주력지구, 연풍과학자휴양  
소 등 도처에 일떠선 기념비

호전세력이 침략의 대포소리  
를 울리며 공화국을 집어삼키  
겠다고 덤벼드는 때에 뜻밖  
에도 인민생활과 관련된 수산사  
업소건설장으로 자기들을 부르  
는 최고사령관명령을 받아안은  
군인들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우리는 벌써 적들과의 싸움에  
서 이겼다는 자신만만한 배짱  
이였을것이다. 하기에 군인들  
은 맡겨진 전투과제를 빛나게  
수행하고 최고사령관께 완공의  
보고를 하루빨리 드릴 불타는  
결의를 다지고있다. 머지않아  
동해기습에 현대적인 5월27일  
수산사업소가 일떠서고 온 나  
라에 인민의 행복을 더해주는  
사회주의바다향기가 가득 차  
넘치게될것이다.

동해에서만이 아니다. 서해  
문, 안변청년발전소, 평양-원  
산관광도로, 문수물놀이장,  
미림승마구락부, 김책공업종합  
대학 교육자살림집, 위성과학  
자주력지구, 연풍과학자휴양  
소 등 도처에 일떠선 기념비

적창조물들에게도 인민군인들  
의 땀방울이 스며있다. 풍치  
수려한 대동강의 속섬에 웅  
장한 자태를 드러내고있는  
과학기술전당건설장에서도,

## 포항, 집결되는 침략무력

이 시각 동해남단에 위치한  
경상북도 포항으로는 미군과  
남조선군의 방대한 무력이  
집결되고있다. 《독수리》합  
동군사연습의 절정을 이루는  
《쌍룡》연합상륙훈련을 위  
해서이다.

이 상륙훈련의 목적은 《평  
양점령》이다. 침략의 선견대  
가 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지  
피는것과 동시에 공화국의 동해  
안으로 상륙하여 평양을 점령  
한다는 전조선반도를 타고  
다니는것이다. 이를 위해 미해  
병대와 남조선군해병대의 수  
많은 병력과 조선반도주변의  
해저지형에 맞게 건조된 연안  
전투함정, 포위포함정, 연안  
전투함정 등이 포함으로 속  
속 투입되고있다.

상륙작전은 전형적인 공격  
작전이다. 침략과 전쟁에 이  
끌린 미국은 상륙작전에 너무  
도 익숙되어있다. 미국의 조선  
에 대한 침략력사에는 상륙작  
전이 많이 등장한다. 1866년  
침략선 《서먼》호를 타고 대  
동강을 거슬러 올라온 미국의  
해적무리들은 료지에 상륙하  
여 부녀자들을 릉육하고 조선  
군인들을 살해하다 못해 자기  
들을 평양성에 들어놓으며 쌀  
1000섬과 많은 량의 금, 은,  
인삼 등을 내놓을것을 강박  
하였다.

1950년 조선에서 침략전쟁  
을 일으키고 초기부터 패배의  
운명에 처하게 되자 5만여  
명의 대병력과 수백척의 함  
선, 약 1000대의 비행기를 동  
원하여 대규모적인 인천상  
륙작전을 감행한것도 미국  
이고 1953년초 동서해안에

미래과학자거리건설장에서도  
《조국보위도 사회주의건설도  
우리가 다 맡자!》라는 인민  
군인들의 구호가 높이 울리고  
있다.

120만명 무력의 동원하에  
억제단계, 무력화타격단계,  
지상공격작전단계, 전쟁성  
과확대단계,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통일》을 실현하는  
단계로 짜여진 립체적인 북  
침전면전쟁 각본인 《작전  
계획 5027》에도 상륙작전  
이 포함되어있다는것은 비  
밀이 아니다.

지난 조선전쟁시기 인천  
에 상륙하여 서울을 탈환하  
라, 거기에 재물도 있고 부  
너자도 있다고 떠벌이며 무  
고한 인민들을 야수적으로  
학살한 미국



과학기술전당건설을 힘있게 다그치고있는 인민군군인들



침략전쟁연습에 광분하는 미군과 남조선군

흔히 폭포라고 하면 그 장쾌함과 아름다움으로 하여 사람들의 기분을 즐겁게 해주는 자연의 경치를 그려보게 된다. 하지만 나는 이 글에서 자연의 아름다운 폭포가 아니라 인민들의 생활을 더욱 윤택하게 해주는 기쁨의 폭포에 대해서 이야기하려 한다. 지난해 물고기잡이로 들끓는 어느 수산사업소를 찾았을 때였다. 은빛색갈 번쩍이는 물고기들이 하류장에서 쉬임없이 쏟아져내리는 모습은 보면 볼수록 회한하기만 하였다. 거기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는 나에게 동행한 사업소의 일군은 만족한 웃음을 지으며 이렇게 말하는것이였다. 《기자선생, 우리 사업소의 물고기폭포가 어떻습니까. 정말 장관이지요.》 물고기폭포! 참으로 바라볼수록 가슴이

후더워움을 금할수가 없었다. 인민들에게 사철 신선한 물고기를 먹이시려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한평생의 념원을 활짝 꽃피우시기 위하여 경에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바쳐오신 심혈과 로고는 얼마이며 걸으신 길은 그 얼마였던가. 물고기문제를 푸시기 위해 한 인민군대수산기지를 찾으시여 성과의 비결도 물어주시고 기쁨냄새가 질게 풍기는 고기배의 기관실안에까지 들어가시여 작업시에 연료소비량도 직접 알아보신 원수님이다. 수산업을 발전시키자면 현대적인 고기배가 많아야 한다고 하시며 최신설비를 갖춘 《단풍》호를 보내주신분도, 물고기잡이에서도 인민군대를 맨 앞장에 내세워 돌과구를 마련해



김선아

주시고 온 나라가 인민군대수산부문의 모범을 배우도록 해주신 배우도록 해주신 분도 경에하는 원수님이다. 실로 인민들에게 더 큰 행복을 안겨주시려고 쉬임없는 헌신지도의 길을 걸으시는 원수님의 정력적인 령도의 손길이 있어 물고기가 없다던 바다에 풍어기가 휘날리고 도처에서 물고기폭포가 쏟아지는 또 하나의 새로운 선경이 펼쳐지게 된것이다. 어찌 그뿐이랴. 강산에 가면 쇠물폭포, 냇변에 가면 비로폭포, 흥남에 가면 파인폭포, 김정수평양방직공장에 가면 천폭포, 문수물놀이장에 가면 각종 물폭포... 정녕 이 땅은 그 어디를 둘러봐도 폭포자랑이다. 이제 머지않아 대규모 축산기지인 세포동관에서 고기폭포, 우유폭포까지 쏟아지게 되면 인민들의 생활은 얼마나 더 윤택해질것인가. 그 폭포가 하나 둘 늘어날 때마다 인민의 만복이 꽃피날 천하제일강국의 그날이 앞당겨져오리라. 이 나라의 장쾌한 폭포들, 그것은 경에하는 원수님께서 온 나라 인민들에게 안겨주시는 사랑과 행복의 폭포이다. 김선아

이지 않았다. 그러던 지난해 1월 어머니와 함께 창광원에 갔던 영현이는 물결을 헤가르는 수영선수들을 바라보며 부러움을 금치 못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사그라졌던 희망의 불씨가 저도모르게 되살아났다. 그런 딸의 모습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눈가에는 눈물이 글썽하였다. 며칠후 김영현의 집으로 조선장애자체육협회 강호진 수영감독이 찾아왔다. 그는 영현이 부모들에게 우리 나라에서는 장애인들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희망과 소질을 마음껏 꽃피울수 있다면 장애자체육협회에서 영현이를 맡아 꼭 훌륭한 수영선수로 키우겠다고 말하였다. 이렇게 되어 영현이는 조선장애자체육협회 수영소조에서 수영을 배우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육방뿐이지 몸도 가누기 힘든 장애인으로서 수영을 배우기는 말처럼 쉽지 않았다. 그런 그에게 강호진감독은 수영의 묘리와 방법을 알기 쉽게 설명해주었으며 기초동작으로부터 유

연성훈련, 육체훈련, 수중훈련 등을 꾸준히 배워주었다. 그 나날 영현이의 수영솜씨는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 하루에 3000m를 헤엄쳐야 하는 훈련과제도 척척 수행할수 있게 되었다. 강호진감독은 영현이에게 수영만이 아니라 기타도 배워주어 그가 비관을 모르고 늘 웃음속에, 기쁨속에 살도록 혈육의 정을 기울여왔다. 이뿐이 아니다. 아침이면 영현이를 자전거에 태우고 학교에 가는 담임선생님이며 수영훈련을 하는 영현이를 친딸처럼 돌보아주는 창광원의 관리원어머니들, 매일이다싶이 찾아와 학습방조를 주는 동무들, 때없이 찾아와 보약과 책을 한가득 안겨주는 다정한 이웃들... 모두가 영현이의 친부모, 친형제나 다름없는 고마운 사람들이였다. 상처입은 자식일수록 더 아껴주고 따듯이 보살펴주는 고마운 제도과 사람들속에서 영현이는 희망을 활짝 꽃피우며 복받은 삶을 누려가고 있는것이다. 본사기자 김철호

김영현으로 말하면 몇해전에 뜻하지 않은 사고로 한쪽다리를 잃은 장애인이다. 성한 사람도 쉽게 배우기 힘든 수영을, 그것도 한쪽다리가 없는 장애인녀학생이 수영경기에서 이긴 사실은 못사람들의 놀라움과 경탄을 자아냈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웃음이란 모르고 눈물과 비관속에 모든 꿈을 포기하였던 그가 만사람의 축복을 받는 수영선수로 자라기까지에는 감동깊은 사연이 깃들여있다. 유치원시절부터 물놀이를 좋아했던 영현이는 수영선수가 되기를 희망했었다. 하지만 그후 장애인이 되고보니 그 희망을 실현할 가망은 보



김철호



# 온 나라가 과학기술지식보급마당으로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공화국에서 과학기술지식보급사업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여러 도, 시, 군(구역)들에 현대적인 설비들을 그쁘히 갖춘 도서관, 미래원(전자도서관)들이 일떠서고 공장, 기업소들에서 과학기술지식보급실 운영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 어느 단위에 가보아도 실정에 맞게 잘 꾸려놓은 과학기술지식보급실들에서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기술학습도 하고 다방면적인 지식을 배워가고있다. 누구나 원격교육대학 학생이 되고 과학기술지식보급실의 적극적인 리용자가 되고 있다.

김정숙평양제사공장은 과학기술지식보급사업을 잘하는 단위로 소문이 자자하다. 2011년부터 김책공업종합대학 원격교육대학 강의를 시작한 공장은 해마다 학생수가 늘어나고있으며 종업원들의 학습열의도 나날이 높아지고있다. 종업원들의 기술기능수준이 올라보게 오르고 과학기술과 생산이 더욱 밀착되고있으며 가치있는 기술혁신안들이 창안도입되어 현대화사업이 힘있게 추진되고있다. 이 공장 일군들은 《과학기술보급실운영이 종업원들을 과학기술의 주인으로 만들고 기술개진에서 큰몫을 하고있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은 지식을 주는 과학기술지식보급실이 꾸러져 있다. 지난 2월 경에 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평양화장품공장에서 과학기술지식보급실을 꾸러놓고 종업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부단히 높이고있는것을 보시고 이제는 어디가나 과학기술지식보급실을 꾸러놓고 그 운영을 정상화하고있는것이 하나의 풍경으로 되고있다고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 인민대 학습당에서 정보봉사, 원격강의 활발

인민대 학습당에서 당의 전민과학기술인재화방침을 높이 받들고 정보봉사와 원격강의를 활발히 진행하고있다. 정보산업시대,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학습당에서는 올해에만도 12만여건의 최신과학기술 자료들을 자료기지에 보충하였다. 각지 도서관들과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들의 과학기술지식보급실들에 정보를 신속하게 전송할수 있는 정연한 체계를 세워놓고 매일 수백건의 과학기술자료들을 주문자들에게 봉사하고있다. 학습당의 일군들과 연구사들은 올해에 들어와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를 비롯한 주요단위들과 건설현장들에 나가 수천건의 가치있는 과학기술자



— 평양화장품공장 과학기술지식보급실에서 —

말그대로 온 나라가 과학기술지식보급마당으로 변모되고있는것이 공화국의 현실이다. 교육성의 한 일군은 《일찌기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를 마련해주고 전민학습의 새 역사를 펼쳐주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경애하는 원수님께

서 전체 인민을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높은 과학기술지식을 소유한 인재로 키울 웅대한 구상을 펼쳐시고 전민과학기술인재화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고계신다.》고 하면서 과학기술지식보급실은 단순히 사람들에게 과학기술을 알려주는 장소가 아니다, 이곳에는 절세위인들의 인민대중애일주의사상이 응축되어있고 강성국가건설의 원대한 포부와 리상이 어려있다고 말하였다.

과학기술지식보급기지에서 누구나 탐구의 나래를 활짝 펼쳐가는 지식경제시대의 새 풍경과 더불어 온 나라에 창조와 비약의 불바람이 세차게 밀고 전민과학기술인재화구상은 자랑스런 현실로 꽃피고있다.

료를 보급하였다. 이미전에 확립한 실시간 대화형체계에 의한 원격강의는 각지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선진과학기술지식들을 신속히 습득하고 현실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하는데서 큰 은을 내고있다. 요청강의, 통보강의를 비롯하여 세계과학기술발전 추세와 여러 분야의 과학기술지식들로 일관된 원격강의를 받으려는 청강생들의 수가 나날이 늘어나고있다. 인민대 학습당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인민경제의 여러 부문에서 우리 식의 현대화, 정보화를 다그치며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과학문화기술수준을 높이는데 도움을 주는 각종 형식의 봉사를 보다 적극 벌려나가기 위해 노력하고있다. 본사기자

이해도 그냥 흘러간다

좋아, 울지 말아  
새해의 문고리를 잡기 전에  
우리 생각의 매듭을 짓자

## 수기 아버지 에 대한 추억 (3)

1만 4 600밤을  
하루밤도 빠짐이 없이  
자식을 불러온 아버지가 있다

오겨들랑  
강강수월래로 두레춤을 추어  
보자

아버지를 기다리는 자식들도  
그 허구많은 세월을  
통일을 기다리며 살았으리

형제 숙질 마주 만나 부모  
사촌 고종이종  
남편안해 다시 만나 남남  
복너 서로 만나

산도 변하고  
바위도 늙고  
세월에는 녹이 쓸어도  
끓어져 피가 돌는  
혈육의 정은 진동이 멎지 않아

꿈속에선 아이들이 늙은이로  
서로 만나  
못견디게 그림던 손 허겁지겁  
덥석 잡고

한시간이 천근인듯  
이 밤이 무거워서  
사람들은 그림자처럼 말이  
없고  
어둠은 그냥 바다물처럼  
고인다

강강수월래로 두레춤을 추어  
보자

누가 축배를 들자느냐  
분렬의 땅에서 유리잔 부딪  
는 소리는  
얼음장 굵이 가듯 싸늘한  
소리

너도나도 하나되어 만백성이  
하나되어  
그렇게도 되고싶던 온 나라  
가 하나되어  
하나같은 기쁨으로 새세상  
을 부르면서

마흔한해만에는  
기어코 저 장벽의 문을 열어  
물목이 터지듯 기쁨이 터져  
울며 웃으며  
통일의 축배를 나누도록

수월래 수월래 수월래 강강  
수월래로  
삼천리 내 나라를 두레두레  
감싸보자

오늘은 우리 민족의 힘으로  
분렬장벽을 밀어내고  
하늘땅이 다시 밝는 새날을  
안아올  
엄숙한 맹세로만 이 밤을  
새우자

좀 신명이 느껴지는지? 나에게는 초록이 동색이다. 분렬된 민족의 영원한 주제인 통일은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너무도 아픈 주제이며 한이 맺힌 주제이다. 그래서 통일시인 김상훈은 행복하지 못했다. 그는 누구보다도 더 통일이 그리운 사람이었기때문이다.

아버지는 북에서 통일시인으로 알려져있다. 유명한 영화감독인 박정주는 아버지의 시를 수십편이나 외우고있고 외출 때마다 운다. 사람들이 많이 모인데서도 울고 혼자서도 운다. 그도 남반부가 고향이어서인지... 그러나 아버지의 시는 남조선에 고향을 둔 사람들만 울리는것이 아니다. 늙은이도 울리고 꿈많은 처녀도 울리고 지어는 어린아이까지 울린다. 인정 많고 다감하고 유모아까지 넘치는 아버지가 그 많은 사람들을 울리다니 그래서 좀 신명도 내보려고 애쓰시였다.

나의 유년시절은 끝났다. 그 집에서 중학교와 전문학교를 졸업한 나는 군대에 갔던 것이다. 그사이에 집은 두번이 소신했다. 5층짜리 아파트에서 10층짜리 아파트로, 처음에는 세칸, 다음에는 네칸짜리 집으로 갔다. 우리 인민의 생활수준이 그만큼 높아진것이다.

새빛이 터져나와 하늘땅이 다시 열려  
산도 절로 물도 절로 뭉개  
구름 기쁨절로  
삼천리 이 강산에 통일의 날

나는 제대후 2년만에 문학에 출판사 기자가 되었다. 군중문학현상운동에 당선되었던것이 다. 배치된 날 아버지가 주필이 누구냐고 물어서 김학연선생이라고 했다. 아버지는 반가워하면서 전쟁시기 장편실화소설 《인민복수자들》을 낼 때 담당편집원이였다고 했다. (그렇다면 한번 전화라도 해주었으면...)

성냥 한곽을 사본 일이 없었다. 이런 아버지가 책상과 의자를 사왔다. 그것도 신선살림이나 갓 결혼하는 사람들에게 배정해주던 훌륭한 가구였다. 어떻게 사왔느냐고 물으니 집 밑에 있는 건재상점(아직도 있다.)에 가서 《나는 작가이고 내 아들은 기자요. 그런데 집엔 책상이 하나밖에 없소.》 했더니 주더라는것이였다. 상점에서, 아버지에게도 정말 이례적인 일이었다.

나는 아버지에게서 특별히 문학수업을 받은적이 없다. 그래도 스물세살에 기자가 되어 서른한살에 편집부장이 되었다. 내 동생 종석이도 아버지가 사망한 후에 제대되어 와서 김형직사범대학 작가반을 졸업하고 장편소설 두편, 영화문학한편을 실현시켰다. 《평양날파람》이라는 반일주제의 영화는 꽤 인기있는 영화이다. 아마 퍼줄이 시키는가보다.

내가 편집부장이 되던 날 처가 옥류관에서 부서사람들이랑 초청해서 한상 차렸다. 그날 아버지도 오셨다.

평생 술을 안하신 아버지가 그날 술을 석잔이나 하셨다. 비가 쏟아지는데 아버지는 걸어가자고 하시였다. 한여름밤 부자간이 억수로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대동강변을 걸어가다. 아버지는 일생 못해본 술주정을 어머니에게 하겠다고 하시면서 연습까지 하였다. 그런데 한시간반쯤 웃고 떠들면서 집에까지 도착하여 문을 여니 술이 깨끗이 깨여 도무지 주정할수가 없었다. 행복한 밤이었다. 내가 아버지에게 효성을 했다던 그날이 전부였다. 나는 너무나도 아버지의 속을 많이 태운 아들이였다.

대신 동생 종석이는 아주 모범생이였다. 어릴 때 전자공학을 전문했으면 하는 아버지앞에서 《오리온》 라지오를 망쳐먹고 귀한 텔레비전을 다 뜯어 고장내도 절대 육 한번 먹지 않았다.

너는 또 묻는구나  
내가 왜 고향말씨를 버리지 못하느냐고  
사투리가 무슨 귀한 유산이나  
몸에 밴 향수도 아니란다

세월은 흐르고  
모습은 변하여  
얼굴가득 주름살이 생기고

머리에 백발이 성성해도  
40년을 하루같이  
고향사투리를 버리지 못한  
그런 아들도 있음을 보여  
주자고  
통일독립의 그날을 위하여  
사투리를 버리지 못하고  
있단다

《이 문둥아!》, 《이 가시나야》 아버지 고향말씨라는데 이런거다. 처음엔 우습다가 하도 절절하니까 다음엔 눈물이 났다.

집엔 이처럼 눈물내는것이 또 있는데 그게 고추산적이다. 파란고추, 빨간고추들을 구색에 맞추어 가루에 묻혀 기름에 튀기는 풋고추튀김, 눈물이 줄줄 흐르게 매운 음식이다. 어쩌다 생일날이나 명절날 이 음식이 빠지면 일생 음식타락을 모르는 아버지가 막 신경질을 냈다.

《내가 호의호식을 바라는가, 산해진미를 해달라는가?》 아버지의 고향음식이다. 눈물이 나도 맛있게 먹어야 하는 고추산적이다. 하도 습관이 돼서 이젠 나의 손녀, 그러니까 아버지가 얼굴도 못 본 아버지의 증손녀 경영이까지도 그 매운 고추를 정말 잘 먹는다. 음식이야기를 하니까 또 한가지 생각났다.

아버지는 1987년 5월에 암진단을 받았다. 당에서 외국치료도 예견했었는데 그뻘 이미 늦었다. 아버지 자신은 병명도 구체적으로 모르는데(내가 숨기였었다.) 집에서 한 석달 치료를 받았다. 별의별 의사가 다 왔었다. 최장암업 고기가 나쁜데 소고기는 좀 낫다고 한다. 리리사를 하던 처가 어디서 질 좋은 소고기를 얻어왔는데 아버지가 이런 이야기를 하였다.

경상도 거창은 지독한 산골이다. 옛날에 거기서부터 서울까지 파거시험을 보러 가자면 한여름철에도 변하지 않는 좋은 음식이 있어야겠는데 그게 바로 소육회포다. 중국요리가 전문이지만 조선료리도 꽤 잘 아는 처도 모르는 경상도식 소육회포였다. 그래서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두리반을 퍼놓고 마주앉아 참깨며 갖은 양념을 다해서 재운 얇게 썬 소고기를 해벌에 말렸다.

참으로 맛있는 음식이였다. 아버지는 얼마 들지 않았고

선반에 높이 얹으시였다가 손자, 손녀가 오면 하나씩 입에 넣어주시곤 하였다. 이젠 그때 할아버지앞에서 아양을 떨던 자기만 한 딸이 있는 할아버지의 손녀인 내 딸 려우이는 아직도 그 맛을 잊지 못한다.

아버지에게는 평생 자기가 계획했던 《가요집》 1, 2권, 《한시집》 1, 2권, 《력대시선집》, 《풍요선집》, 《리규보작품집》, 《정다산과 그의 문학》, 《중국고대시선》 등 수많은 고전시가들과 두권의 장편소설과 사후에 출판된 두권의 시집이 있다. 아버지가 계획했던 《민요집》이 《가요집》으로 된것은 민요에 필자가 있는 고전가요도 다 포함시켰기때문이다. 그리고 많은 독자들을 가지고있는 아버지의 시집이 사후에 출판되게 된것은 적지 않은 시들이 발표를 전제로 쓴것이 아니기때문이다. 통일없이 지나는 어느 설날그믐날밤에, 남녘의 아픈 소식이 실린 어느 신문지여백에, 피울음을 울면서 쓴 시들이 바로 아버지의 시들이기때문이다. 아직도 아버지의 시에 조용히 손을 얹으면 《속가슴타는것이 밤초불 그뻘이며 피울을 우는것이 산집동새 그뻘 이더냐》 하던 아버지의 목소리가 마 타 터져나오는것 같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이런 시들을 다 찾아 출판하도록 해주셨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는 고향에 묻히지 못하는것을 그리도 가슴아파하시며 해당 일군에게 직접 전화로 그는 중요한 책들을 낼 때 많이 주요필자가 되어 공로를 많이 세운 사람이라고, 나라의 통일을 위해 좋은 글을 많이 쓴 작가라고 하시며 장지까지 몸소 정해주시였다.

아버지는 지금 조국 통일수상자 김상훈이라는 명함이 돌사님 밑에 새겨져있는 렬사릉에 계신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찾아내어 보호해주시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이처럼 빛나게 맺어주시신 아버지의 한생은 자랑스러운것이 아니겠는가! 다시 행복에 대하여 생각해본다. 인간의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 아

버지는 늘 개관사정이라는 말을 했다. 관뚜껑이 닫히는 순간까지 비록 이루지는 못했어도 하나의 목적을 향해 줄기차게 나간 삶이 행복이 아니겠는가!

1987년 8월 30일 밤, 아버지는 보통강집에서 세상을 하직하였다. 장례는 기관장으로 하였다.

통일을 못 보시고 돌아가신 아버지 안타까운 그 마음이 밤하늘의 달이 되어 밤마다 내 창가를 지켜보고 계시나

활짝 핀 우리 살림 대견하여 웃으시다  
홍에 겨워 잠시라도 남녘을 잊을세라  
흰구름 사이사이로 마음쓰고 계시나

통일의 만세소리 어서 들려달라고  
아버지 새벽달 되어 기다리고 계시나

이제 아버지는 없다. 퍼를 태우는 애절한 목소리로 반평생을 다바쳐 아버지가 부르고 부른 어머니(남녘에 계시는 어머니)도 이젠 아들을 부르다가 숨졌으리라. 하지만 지금은 박우물과 대숲과 울타리와 아버지의 발에 익고 우리 가족들의 너리에 새겨진 팔목길과 마을 앞 실개천이 떠나가신 아버지와 어머니들을 대신하여 분렬된 조국의 아들딸들을 부른다. 마을에 가득차고 풀안에 가득차고 하늘땅에 가득찬 그 소리가 정녕 통일을 부르는 겨레의 목소리가 아니겠는가!

김종설(김상훈의 맏아들)  
2015년 2월 6일





# 《종북론》의 정체를 해부함

미국대사정변사건을 계기로 《종북》 유명과 열병이 온 남조선땅을 휩쓸고있다.

북침전쟁연습에 광분하는 미국에 항거한 애국적의거를 《종북세력》에 의한 테로로 몰아 일대 폭압광풍을 일으키는가 하면 어중이떠중이들을 끌어내어 《종북세력》 규탄대회니 뉘니 하는 광대극들을 연일 벌리고있다.

《대통령》으로부터 청와대, 행정부, 《새누리당》, 검찰과 경찰, 늑대리산송장 극우보수들까지에 이르기까지 보수란 보수는 다 떨쳐나 이번 기회에 《종북》 세력을 기어이 뿌리뽑아야 한다고 입을 모아 기업을 도하고있다.

극도에 이른 《종북》 히스테리는 마치 1950년대 미국전역에 휘몰아치던 《맥카시즘》과 1930년대 전유럽을 휩쓸던 나치스히틀러의 광기를 연상케 한다.

《종북》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괴뢰당이 미친게 짓듯 고아대는것인가. 《종북론》의 정체는 무엇인가.

원래 《종북》이라는 말은 사전에도 없고 그 실체도 없는 허황한것으로서 괴뢰보수패당이 남조선에서 날로 높아가는 럽북기운을 막고 파쇼탄압과 동족대결책동에 더욱 매달리기 위해 억지로 만들어낸 반동적괴변이다.

괴뢰패당은 지난 시기처럼 럽북이나 친북에 걸어서는 북을 동경하며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지향하는 남조선인민들의 열망을 억누를수 없게 되자 북을 추종한다는 뜻의 《종북》이라는 낱말을 새로 조작하여 악랄하게 내뿜고있는것이다.

《종북론》은 오늘 괴뢰보수패당의 파쇼폭압과 동족대결, 친미사대매국을 정당화하기 위한 도구로, 추악한 반민족적책동을 만천하에 고발하는 대명사로 되고있다.

《종북론》은 무엇보다 괴뢰정권의 통치위기를 모면하고 진보민주개혁세력을 말살하며 친미보수패당의 장기 집권음모를 실현하기 위한 반민주적, 반인권적파쇼폭압론이다.

괴뢰정권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모략사건을 터치고 우방과 억지로 결부시켜 파쇼탄압에 광분하는것은 역대 괴뢰통치배들의 상투적수법이다.

리승만역도의 진보당사건, 박정희역적의 인민혁명당사건, 전두환, 로태우군사강제들의 광주학살사건, 리명박역도의 왕재산사건 등은 그 대표적실례이다.

현 괴뢰보수패당 역시 지금 지난 《대통령선거》때의 부정협잡과 독선과 전횡, 경제파괴와 민생파탄, 북남관계악화, 각종 참사와 비리 등으로 심각한 통치위기에 직면해있다.

남조선에서는 박근혜친구호가 비발치듯 하고있으며 민심의 불만은 폭발직전에 이르르고있다.

이런 정세속에서 미국대사정변사건까지 일어나 더욱 궁지에 몰리게 되자 이목을 뒀는데로 돌리고 위기를 수습하기 위해 다 깨진 《종북》 나팔을 다시 꺼내들고 미친듯이 소동을 벌리고있는것이다.

괴뢰패당은 《종북론》을 민병통치약처럼 내뿜으면서 남조선각계층의 불만과 항거의 목소리를 억누르고있을뿐아니라 저들에게 조금이라도 거슬리게 되면 합법적인 정당, 단체이

건, 《국회》의원이건, 종교인이건, 일반주민이건, 가정주부이건 가차없이 《종북》 모자를 씌워 가혹하게 탄압하고있다.

괴뢰패당의 《종북》마수에 걸려든 사람들가운데는 북의 표현을 썼다는 지식인도 있고 생존권을 요구한 노동자도 있으며 송전탑건설을 반대한 마을주민들도 있다.

괴뢰사법당국은 북의 주장에 동조하거나 공감하는 사람, 당국에 비판적인 사람, 《정부》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사람 등을 《종북》으로 정의해놓고있으며 지어는 각계층의 투쟁을 《인간의 질이 낮은 사람》들의 망동으로 모독하면서 그들을 《종북》으로 몰아 야수적으로 탄압하고있다.

괴뢰패당의 무분별한 《종북》광란에 의해 합법정당으로 십여년동안이나 활동해온 진보정당이 《종북정당》으로 되어 강제해산당하고 선거를 통해 선출된 이 당 《국회》의원이 《종북》의원으로 몰려 재판을 받는가 하면 북을 방문하여 보고 들은 현실을 그대로 전한 가정주부가 《종북아줌마》로 매도되어 박해를 받고있다.

괴뢰대통령선거때 현 집권자를 반대한 사람들, 부정선거를 비판한 사람들, 현 《정권》 퇴진을 주장하는 사람들, 지어 미국을 비난한 사람들도 다 《종북》의 울가미에 걸려들고있다.

오죽하였으면 남조선에서 《박근혜와 그 추종자들을 내놓고는 다 종북》, 《종북몰이에서 벗어난것은 《종북》(박근혜추종)뿐》이라는 말까지 나오고있겠는가.

역사적으로 보면 고대와 중세의 절대군주와 폭군들이 저들의 폭압통치를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 악마로 몰아 《마녀사냥》 놀음을 벌리었다. 지난 세기 나치스도이힐러들과 미국도 반공파쇼광란과 《맥카시즘》으로 《빨갱이사냥》의 악명을 떨쳤다.

그러한 《마녀사냥》, 《빨갱이사냥》이 오늘 남조선에서 《종북》의 간판에 공공연히 자행되고있는것이다.

선진적인 사상과 리념을 따르고 정의에 공감하며 불의를 라매하는것은 인간의 초보적인 권리이며 인권의 보편적요구이다.

괴뢰패당의 무지막지한 《종북》소동은 남조선인민들의 초보적인 인권마저 강그리 유린한 말세기파쇼광란이다.

실로 현 괴뢰패당처럼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의 《종북》 히스테리소동을 벌리는데는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다.

《종북론》은 동족에 대한 적대관념과 불신, 반목질시로 민족의 화해와 단합, 나라의 통일을 가로막고 북남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가기 위한 극악한 동족대결론, 반동일론이다.

괴뢰패당이 《종북》소동을 일으키면서 진보민주세력을 비롯한 남조선 각계층을 가혹하게 탄압하는데는 북은 같은 동포가 아닌 《적》이므로 북을 동경하고 북과 럽계를 가지는것은 《리적행위》, 《체제전복행위》로 된다는 적대적인 사고관점과 대결의식을 바탕으로 하고있다.

괴뢰보안법에서는 북을 《반국가단체》로, 《적》으로 선포하고있는가

하면 괴뢰호전광들은 《주적론》을 공공연히 쫓아대면서 북은 함께 살수 없으며 반드시 싸워 이겨야 할 《적》이라고 강변하고있다.

그러므로 북을 지지하고 동경해나서는것은 물론 무비판적으로 대하는것도 《종북》이며 《반국가적범죄》로 된다는것이다.

바로 《종북론》은 이러한 반동적괴변을 출발적전제로 하고있다.

괴뢰패당은 지금 사회의 곳곳에 진보와 민주로 위장한 《종북세력》이 침습하여 저들의 《자유민주주의제도》와 통치체제에 도전하고있다고 하면서 그것이 마치도 우리의 《지령》과 《사주》에 의한것인듯이 철면피하게 묘사하고있다.

진보정당들에 대해서는 《북의 지령》을 받아 《자유민주주의체제전복》을 기도하는 《종북의 본거지》로 몰아대는가 하면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서는 《북로동당2중대》, 《종북속주》라고 떠들어대고있다.

괴뢰패당이 《종북》세력을 우리와 럽관시켜 《체제위협세력》으로 매도하고있지만 지난 시기 남조선에서 대승적인 인민항쟁이 터지고 《정권》이 거꾸러진것이 그 누구의 《사주》이나 《추주》에 의한것이 아니라 내부민심의 폭발이었다는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괴뢰패당이 운운하는 《북추종세력》, 《종북세력》으로 말하면 우리를 동경하고 공감하는 사람들이다.

정의와 럽성, 존엄을 귀중히 여기고 민족의 다투고 괴를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인들 우리 민족의 존엄을 최상의 경지에서 빛내여주시고 인민을 위한 참세상을 펼쳐주신 절세의 위인들을 존경하지 않을수 있고 공화국의 훌륭한 정치와 제도, 눈부신 현실을 동경하고 공감하지 않겠는가.

남조선각계층 사람들이 북의 체제를 찬양하며 북의 노래를 부르는것이 바로 스스로의 판단과 자연스러운 감정으로부터 출발된것이라는것은 이미 명백히 확증된 사실이다.

오늘의 문명시대에 자기가 신봉하는 위인을 칭송하고 진보적인 사상과 제도를 공감하는데 대해 범죄시하는것은 오직 남조선괴뢰들뿐이다.

괴뢰패당의 《종북론》이 더욱 문제시되는것은 저들의 반공화국악선전에 동조하지 않거나 동족을 반대, 규탄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종북》으로 몰아 탄압의 몽둥이를 휘둘러대고있는것이다.

괴뢰국회에서 북을 규탄하는 《결의안》 조작에 반대하거나 불참 또는 기권을 하였다 하여 《종북정당》의 혐의를 씌우고 《천안》호침몰사건을 《북의 소행》으로 규탄하지 않아도 《종북이단자》로 몰리우고있다.

북의 체제를 비판하지 않는다고 하여 《종북》, 북의 핵, 미싸일위협과 인권을 문제시하지 않는다고 하여 《종북》, 북을 욕하지 않는다고 하여 《종북》, 이런저런 생트집으로 남조선각계층을 마구잡이로 《종북》의 딱지를 붙여 잡아가두는것이 오늘의 남조선현실이다.

세상에 이런 불법무법의 천지가 어디 있는가.

괴뢰역적패당이 얼토당토않게 《종북》감투를 마구 뒤집어씌우는것은 그들이 얼마나 동족대결에 환

장이 되어있는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으로서 그것은 약동하고 비약하는 공화국의 눈부신 현실에 전률하고 그 영향이 남조선에 미치는데 질겁한자들의 단말마적발악이다.

결국 괴뢰패당의 《종북론》은 동족에 대한 적대감을 고취하여 남조선에서 높아가는 럽북통일기운을 차단하고 풍지박산난 《체제대결》, 《흡수통일》 망상에 계속 매달려보려는 것의 다른 아무것도 아니다.

《종북론》은 《북위협》을 구실로 북침전쟁책동을 강화하며 인민들의 반미자주기운을 거세하고 남조선의 미국의 식민지로 더욱 전락시키기 위한 위험천만한 북침전쟁론, 추악한 친미사대론이다.

제2차 세계대전후 악명높은 반공주의자, 랭전광신자인 미국대통령 트루먼과 아이젠하워는 《공산주의위협》을 떠들며 《세계가 공산주의화되느니 차라리 핵전쟁을 하는편이 낫다.》고 하면서 할리우드영화배우들까지 《빨갱이사냥》의 대상으로 하는 《맥카시즘》을 일으켜 미국내의 반전평화운동을 탄압하고 반공과 핵군비경쟁, 세계제패전략실현에 जु달음쳤다.

히틀러도 1930년대에 나치스도이힐러들을 파쇼화하는데 《공산주의위협》을 악독하게 써먹었다.

괴뢰보수패당이 내뿜고있는 《종북론》은 지난 세기 제국주의자들과 파쇼국가들이 써먹던 케케묵은 반공모략광란의 남조선판, 현대판으로서 특등친미주구, 식민지하수인의 노예적근성이 그에 가미된것으로 하여 그 악랄성과 위험성, 추악성에 있어서 극치를 이루고있다.

괴뢰패당은 외세를 반대하고 자주를 주장해도 《종북》으로 몰고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주장해도 《종북》패쪽을 붙이고있으며 특히 반미를 주장하는데 대해서는 제 살점을 베어내는것보다 더 야단을 치면서 《종북》 쇠고랑을 채우고있다.

괴뢰패당이 이번에 북침전쟁책동에 미쳐날뛰는 미국에 항거하여 남조선주재 미국대사 리퍼트에게 정의의 칼세례를 안긴 남조선주민에 대해 《테로》니, 《종북》이니 뉘니 하고 그처럼 고아대면서 상전에게는 《위로》니 뉘니 하며 역겹게 아부아첨한것은 《종북론》의 추악한 정체의 일단을 웅변적으로 보여주는 단적실례이다.

미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괴뢰들의 《종북》소동을 더욱 부추기기 위해 미련방수사국을 괴뢰경찰청에 상주시켜놓고 반미 《종북》세력속청을 공개적으로 지시하고있는가 하면 리퍼트까지 나서서 자기에게 칼세례를 안긴 주민을 처벌하라고 폭압지령을 내렸다.

미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정보기관들과 연구기관들을 통하여 남조선과 해외에 있는 진보민주세력을 면밀히 감시하면서 그들의 동향과 활동 등을 체계적으로 장악해왔으며 괴뢰패당에게 《종북세력이 다양한 영역에서 세력을 확장하고있다는 점을 경계하고 대비책을 마련하라.》는 비밀지령을 주어 《종북세력척결》에로 내몰았다.

바로 그러한 미국이기에 얼마전 미국시민권자인 재미동포녀성이 남조선에서 북을 찬양하는 강연을 한것으

로 하여 《종북》으로 몰려 극우보수광대들로부터 불테로를 당하여 하마트면 목숨을 잃을번 하고 괴뢰당국으로부터 《추방》조치까지 당하였지만 아닌보살하였다.

제반 사실은 괴뢰패당이 떠드는 《종북론》의 원조상도 미국이고 그를 부추기고 《종북》소동의 물방아간에 물을 대주는 배후세력도 다름아닌 미국이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미국은 《종북》소동으로 남조선인민들의 반미자주의식과 럽북통일기운을 거세하여 남조선에 대한 식민지배를 강화하고 남조선을 발판으로 하여 저들의 침략적야망을 실현해 보려 하고있는것이다.

현실은 《종북론》이야말로 우리 민족에게 핵전쟁의 참화를 들뜨우기 위한 위험천만한 북침전쟁론이며 남조선을 영원히 미국의 식민지로, 침략적인 군사기지로 전락시키고 남조선인민들을 그 희생물로 얹어매놓기 위한 친미사대매국론, 식민지에속론이라는것을 만천하에 고발해주고있다.

《종북론》의 정체는 바로 이러하다.

괴뢰패당이 얼토당토않게 우리를 걸고 《종북론》을 내뿜으며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을 야수적으로 탄압하고 북남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가는것은 우리에게 대한 참을수 없는 모독이고 용납 못할 도발이다.

우리는 나라의 통일을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3대원칙과 력사적인 공동선언들의 기본정신인 우리 민족기리의 리념임을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풀어나갈것을 일관하게 주장하고있다.

남조선각계층이 한혈육인 우리와 손을 잡고 자주통일과 평화번영, 북남관계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것은 누가 보나 자연스럽고 옹양한 일이다.

통일의 길에서 북과 남은 하나의 민족, 하나의 겨례로서 럽북, 친북은 있을지언정 괴뢰패당이 떠드는것과 같은 《종북》은 없으며 북을 동경하고 북과 뜻을 합치는것은 화해와 단합, 통일을 위해서도 좋으면 좋았지 나쁠것이 없다.

괴뢰패당이 실체도 없는 《종북》을 떠드는것은 북남관계개선을 막고 남조선을 파쇼화, 보수화하여 분열과 대결을 영구화하며 각계층속에 종미사대를 부식시켜 남조선을 영원한 미국의 식민지로 만들자는데 그 흉악한 목적이 있다.

남조선에서 웅당 규탄반야야 할것은 《종북》이 아니라 종미이다.

미국의 가장 추악한 전쟁하수인, 식민지노복인 괴뢰패당이야말로 종미의 주범이고 왕초이다.

괴뢰패당이 《종북》소동에 악랄하게 매달리는것은 사면초가의 위기에 빠져 림종의 운명에 직면한자들의 최후몸부림에 불과하다.

력대적으로 민족을 등지고 외세에 추종하면서 파쇼와 대결과 전쟁에 미쳐날뛰던 독재광, 호전광들은 레외없이 비참한 운명을 면치 못하였다.

괴뢰보수패당은 민심과 민족의 분노를 똑바로 보고 자멸을 초래하는 시대착오적인 《종북》소동을 당장 견어치워야 한다.

론 평 원 (《로동신문》에서 전재)



반 《정부》 투쟁에 나선 남조선인민들

남조선인터넷신문 《민중의 소리》가 사실을 통해 당국의 민주주의말살책동을 규탄하였다.

사실은 서울지방경찰청이 지난해 12월에 이어 올해 들어와서도 계속되는 현 집권자와 《정부》의 정책을 비난하는 베라살포투쟁에 대응하라는 폭압지령을 경찰서들에 내려보내는데 대해 언급하고 북을 겨냥한 베라살포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

## 당국의 민주주의말살책동을 규탄

니, 《마땅한 처벌규정이 없다.》느니 뉘니 하며 비호하던것과 비교해보면 참으로 대조적이라고 단죄하였다. 력사적으로 독재 《정권》은 민중의 거세한 항쟁에 의해 무너졌다고 하면서 폭압은 필연코 국민의 저항을 불러온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남조선에서 반

패당의 탄압책동을 규탄하였다.

단체들은 회견문을 통해 박근혜 《정권》을 비난하는 베라를 뿌렸다는 리유로 박성수의 집과 인쇄소를 강제수색한것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심각한 인권침해행위라고 단죄하였다.

박근혜와 《정부》가 민중의 목소리에 귀

를 기울이고 베라살포에 대한 탄압책동을 중지해야 한다고 단체들은 강조하였다.

반박근혜 베라살포로 탄압받고있는 박성수는 현 《정권》이 들어선 이후 민주화말살책동이 강화된데 대해 규탄하는 내용의 베라를 제작하여 기자회견참가자들에게 나누어주면서 자기가 한 행동은 정당한것이며 앞으로 계속 이어나갈것이라고 밝혔다.

본사기자





# 북이 핵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

북이 핵무기보유를 선언한 때로부터 꼭 10년이 되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도 있지만 이 10년은 지구상의 핵지형도를 다시 쓰게 한 격동의 나날이었다. 이 기간 북은 세차례에 걸친 공식적인 핵시험에 성공함으로써 소형화, 경량화, 다중화된 자기의 핵능력을 세계앞에 시위하였다.

물론 북의 핵보유를 반대하는 세력들이 《북핵포기》라는 목적달성을 위해 무진애를 쓴 것 또한 사실이다.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가혹하고 연속적인 제재와 봉쇄, 항시적인 핵위협과 군사적압박...

그러나 이 모든것들은 결코 북핵을 없앨수 없었을뿐더러 도리어 북의 핵무기고를 늘여 주는 결과만을 초래하였다.

얼마전 미국무부 북조선담당 관출신의 조엘 워트 존스훈킨 스대학 초빙연구원은 《북조선이 현재의 핵개발추세대로 나간다면 2020년까지 최대 100개에 달하는 핵무기를 제조할수 있다. 특히 미국본토까지 다달을수 있는 이동식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20~30개 확보할수 있을것으로 전망된다.》고 주장해 세계를 다시한번 깜짝 놀래웠다.

이제 와서 북이 명실상부한 핵무기보유국이라는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수 없는 엄연한 사실로 되고있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북핵포기》라는 환상에 사로잡혀있는 사람들을 보면 마치 창을 빼들고 풍차를 향해 내달리던 돈 끼호떼를 런상케 한다. 미국은 물론이고 그에 맞장구를 치는 이남당국자도 《3.1절기념사》 등 공식적인 자리들에서 《북은 핵이 자신을 지켜줄수 있다는 기대에서 벗어》 나야 한다는 등

《핵포기》를 집요하게 떠들어왔다. 문제는 국제적인 압박과 제재를 동원하며 《핵을 포기》 하라고 요구한다고 해서 북이 과연 핵을 포기하겠다는가 하는것이다. 《북핵포기》는 눈에 보어도 잡히지 않는 신기루에 불과한것이고 워싱턴과 서울의 한갓 희망에 지나지 않는것이다.

필자의 눈으로 보건대 북은 결단코 핵을 포기하지 않을것이다.

그것은 어찌서인가.

첫째로, 북이 보유한 핵무기 **김정일국방위원장**이 남긴 **가장 큰 애국유산**의 하나이기때문이다.

다 아는것처럼 **김정일국방위원장**은 선군정치와 더불어 국제사회에 잘 알려져있다. 선군정치는 군사선행의 원칙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군대를 기동으로 내세워 국가건설전반을 밀고나가는 독특한 정치방식이다. 북은 고난의 행군을 하던 1990년대 중엽에 선군정치를 전면내 내었다. 미국을 위시한 서방의 갖은 제재로 경제건설과 인민생활이 최대로 어려움을 겪어 고난의 행군으로 명명된 시련의 시기를 거쳐야 했지만 선경제가 아니라 선군을 택한것은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지키고야야 한다는 숙고의 결과라고 생각된다. 나라를 지키면 경제를 추켜세우고 인민생활을 높이는것은 문제가 아니라는것이다.

결국 선군의 덕으로,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이겨낸 결과로 북은 자위의 군력을 최대로 강화했고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을 지켜냈다.

미국이 조미회담과 6자회담에서 경수로제공 등 저들의 의무를 회피하고 일방적인 압력과 위협에 계속 매달림으로써

북은 종당에는 핵을 보유하는 선택의 길에 들어섰다고 말할수 있다. 그것은 힘이 없으면 자기를 지킬수 없는 오늘의 세계에서 조선이 택한 가장 정당한 길이라고 평가할수 있다.

하여 미국의 핵구름만이 몰아치던 조선반도에 자주와 정의의 수호하는 자위의 핵폭풍이 일게 되었다.

북의 핵보유가 반만년민족사에 특기할 민족사적대업이기에 《북핵은 민족공동의 귀중한 재부》, 《통일조선의 국보》라는 격동의 목소리들이 이남, 해외 곳곳에서 울려나왔다.

북의 핵보유가 단순히 북만이 아닌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고 온 민족의 무궁번영을 담보해주는 민족의 자랑으로 된다는것은 지나온 10년의 력사가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사실 핵무기가 세상에 출현한지는 70년을 헤아리지만 사용된것은 제2차 세계대전시 이후이였다. 자료에 의하면 1945년 8월 6일 일본 히로시마에 투하된 미국의 원자폭탄으로 당시 도시인구의 절반이 넘는 13~14만명이 폭발력과 방사능피해로 4개월안에 사망했고 도시건물의 70%가 파괴되었다. 련이어 8월 9일 인구 20만명정도였던 나가사키에서는 6만명이 사망했다고 한다.

핵무기는 그보다 더 강한 무기가 없는 거의나 《절대무기》로 군림하게 되었다. 그때로부터 70년동안 세계의 여러 지역들에서 크고작은 전쟁들이 많이 있었지만 핵무기보유국들만은 군사적침략을 당하지 않았다.

북이 값비싼 대가를 치르면서 핵무기를 소유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것이다.

이런 핵을 미국이나 그 추종 세력이 포기하란다고 해서 포기하겠는가. 서방세계가 제재하고 봉쇄하고 압박을 가한다고 하여 피눈물을 삼키고 허리띠를 조이면서 힘겹게 마련한 핵을 북이 과연 포기할수 있겠는가 하는것이다.

김정일국방위원장의 업적중의 업적이 바로 북을 핵강국의 지위에 올려세운것이다. 조선에서 **김정은**은정치는 **김정일**국방위원장의 뜻과 위업을 계승하고 철저히 관철하는데로 총지향되고있다. 이런 북이 핵을 버리는 다른 길을 택한다는것은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다.

**북이 핵을 포기할수 없는 리유는 둘째로, 북의 핵보유가 법제화되어있고 국가의 전략적으로선으로 되고있다는데 있다.**

북은 최고인민회의 12기 7차 회의에서 《자위적핵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데 대하여》를 법령으로 채택함으로써 핵보유를 법제화하였다. 2013년에 있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3월전원회의에서는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켜나간다는 새로운 전략적로선을 채택하였다. 그 회의에서 병진로선은 급변하는 정세에 대처하기 위한 일시적인 대응책이 아니라 공화국의 최고 리익으로부터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전략적로선으로 규정했다. 북은 자기의 핵무기가 결코 미국의 딸라와 바꾸려는 상품이 아니며 대화담당과 협상락우에 올려놓고 논의 할 정치적용정물이나 경제적거래물이 아니라는것도 이미 명백히 천명하였다.

만일 북이 핵을 포기해야 한다면 법을 뜯어고치거나 이미 택하고 세계에 공언한 전략적로선을 수정해야 가능한 일인

데 이런 일은 일어날수가 없다. 북의 병진로선은 이미 지난 세기 60년대에 나와 수십년간 견지해온 병진로선의 계승이고 공고발전이라는 의미에서 더우기 그러하다.

**북이 핵을 포기할수 없는 리유는 셋째로, 오늘날 미국의 핵위협이 날로 가중되고있는 현실적인 사정과 관련된다.**

세상이 아는것처럼 북은 지난 70년간 항시적으로 미국의 핵위협을 받아왔다. 지난 조선전쟁시기에도 미국은 수세에 물리는 전선형편을 역전시키려고 북에 원자폭탄을 투하할 계획을 짜고 그 기도를 공개적으로 드러내었다. 미국의 원자탄공갈에 놀라 수많은 사람들이 남쪽으로 피난의 길에 올랐고 그래서 수많은 리산가족이 생기는 비극까지 초래되었다. 전후 미국이 이남에 1000여개의 핵무기들을 들여다놓고 해마다 각종 북침핵전쟁연습을 벌려온것은 잘 알려져있다. 북과 회담을 하는 리면에서도 미국은 북에 대한 핵투하연습을 비밀리에 벌려놓고 핵선제 공격폭언을 공개적으로 늘어놓기까지 하였다.

오늘날 북에 대한 미국의 핵위협은 날로 더욱 로골화, 증대되고있다.

두해전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때에도 미국은 핵전략폭격기 《B-52》, 《B-2A》 그리고 미해군의 핵동력유도탄잠수함들과 핵동력초대형항공모함집단을 동원하여 북을 엄중히 핵위협하였다. 《B-52》 핵전략폭격기는 수백Kt급핵탄두를 탑재한 공대지미사일을 최대 20발까지, 스텔스전략폭격기 《B-2A》는 핵미사일을 16발과 폭탄 23을 탑재할수 있는 무시무시한 핵무기운반수단

이다. 《B-52》 전략핵폭격기는 그 가용할 핵능력으로 하여 미국에서 핵잠수함, 대륙간탄도미사일과 함께 《3대전략핵무기》로 불리우고있다. 이런 전략핵폭격기들과 핵잠수함들이 무시로 이남과 주변해역에서 북의 중심에 대한 핵타격연습을 벌리고있는것은 비밀이 아니다. 지난해 북과 남이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문제를 협의하는 바로 그날에도 서해의 직도상공에서는 미국의 전략핵폭격기들이 북을 핵타격하는 연습을 벌려놓아 내외의 공분을 샀다.

지난 조선전쟁이래 북과 미국은 오늘까지도 교전상태를 지속하고있다. 그런 속에서 교전상대가 《북붕괴》를 떠들며 핵무기로 마구 위협하고있는데 북이 핵을 포기할수 없다는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리치이다.

북은 자기가 보유한 핵이 철두철미 자위를 위한 핵이라고 주장하고있다. 력사적으로나, 오늘이나 핵으로 교전상태를 위협하고 실제 사용하려고 끝없이 획책하는것은 미국이다. 미국은 조선반도에서 핵문제를 발생시키고 북을 핵보유에로 떠민 장본인이고 실제적인 핵위협 근원, 실체이다.

민족의 운명을 위협하는것은 북의 핵무기가 아니라 미국의 엄청난 핵무기이다. 자위를 지키고 반도의 평화와 자제의 운명을 지키려는 북의 정당한 핵보유는 미국의 핵위협과 침략적인 핵무기가 남아있는 한 앞으로 추호의 변함이 없을것이며 조선은 적대세력의 침략위협에 맞서 핵무기를 질량적으로 더욱 강화해나가게 될것이다.

재오스트랄리아동포 박중언

얼마전 미국대사가 뜻밖의 봉변을 당한것을 기화로 이남에서는 미국과의 《동맹》의 중요성을 떠드는 목소리가 부쩍 높아졌다.

자기를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은 한목소리로 《한미동맹》에 균력이 갈가봐 우려를 표시하고 이 기회에 《동맹》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떠들어대었다. 지어 집권세력내에서는 《비온 뒤에 땅이 굳다.》는 어찌구무 없는 말까지 나왔다.

미국을 신주모시듯 하며 《한미동맹》의 바지가랭이에 필사적으로 매달리는 이남당국과 보수단체들의 추태를 보느라면 쓴웃음이 저절로 나온다. 도대체 《한미동맹》이 이남국민의 운명의 수호신이라도 된단 말인가. 그것은 미국에 대한 지나

## 《한미동맹》, 누구를 위한 《동맹》인가

친 환상에 물젖어 미국없으면 못살것처럼 생각하는 극도의 친미사대와 굴종의식이 만들어낸 병적인 사고방식이라 해야 할것이다.

따지고보면 《한미동맹》이라는것은 이남을 《보호》해주는것이 아니라 반대로 리익을 해치는 침략과 예측의 동맹이며 동족을 반대하는 북침전쟁동맹외에 다른것이 아니다.

친미사대에 환장한 이남의 위정자들은 미국을 하내비처럼 섬기지만 그 미국이 과연 어떤 나라인가를 랑철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미국은 나라가 생겨 지금 이때까지 철저히 자국

중심의 침략적인 리해관계에 따라 움직이는 제국주의국가이다.

최근 미국의 압력하에 벌어진 집단적인 대로씨야제재로 유럽동맹나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있는것만 봐도 잘 알수 있다고 본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반정부세력을 부추겨 친로씨야적인 합법적정부를 뒤집어 오늘과 같은 복잡한 사태를 만들어낸 장본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내전의 책임을 로씨야에 뒤집어씌우면서 유럽동맹나라들에 로씨야에 대한 경제제재에 합세하라고 압력을 가하였다. 결국 미국에 맹종맹동하여 울며 겨자먹

기로 대로씨야제재에 참가했던 많은 유럽나라들이 오히려 그때문에 자국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입고있는것이 현실이다. 최근 드러난데 의하면 미국이 유럽동맹에 대로씨야제재를 가하게 한 기본 목적은 유럽지역에서 날로 약화되고있는 미국의 지위를 되살리려고 유럽 경제에 타격을 가하기 위해 미국이 고안해낸 창안품이였다.

지금 서아프리카나라들을 중심으로 하여 퍼지면서 인류에게 무서운 공포를 주고있는 에볼라비루스도 사실은 미국이 오래전부터 벌려온 생물무기 연구의 산물이며 그 위험을 측정하는 시험대상을 가난한 서아프리카나라들로 삼았다는 자료도 폭로되어 세인의 격분을 자아내게 하고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바로 이리하다. 《자유》와 《인권》을 제일 요란스레 떠들면서도 그것을 세게도처에서 마구 짓밟는 나라가 미국이다.

침략과 랑탈로 생겨나고 살찌은 미국의 눈에는 이남이 한갓 저들의 배를 불리워주는 먹이감으로밖에 보이지 않을것이다. 이남을 《보호》해준다

는 그 미국이 마음이 너그러워서 지금껏 이루 헤아릴수도 없는 많은 이남주민들을 과녁으로 삼아 쏘아죽이고 강간하고 강탈하며 갖은 전횡을 일삼아 왔는가. 미국이 하도 선량하고 이남과의 《동맹》을 귀중히 여기는 나라였기갈터던 나어린 두 녀중 학생을 백주에 장갑차로 깔아죽이고 그것도 모자라 살인자인 미군병사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여 본국으로 빼돌렸던가.

이남의 안전과 국민들의 생명을 지켜준다고 하면서 거꾸로 전쟁위험을 자꾸 몰아와 생존을 엄중히 위협해오고있는것도 다름아닌 미국이다.

미국은 저들의 아시아 지배전략을 실현하기 위해 이남에 수만명의 군대를 상시주둔시키고있으며 저들의 침략목적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한》반도가 핵전쟁의 불마당으로 되는것도 마다하지 않는다. 지난 시기 《한》반도에서 《푸에블로》호사건, 관문점사건 등 미국에 의해 전쟁이 터질번 한 일촉즉발의 위기가 한두번만 조성되지 않았다.

미국이 반도의 정세를 항시적으로 긴장시키고있기에 이남국민들은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를 불안과 위구속에 하루하루를 살아오고있다. 지난 세기 90년대 중엽 미국이 《북핵》소동을 피우면서 북미회담의 막후에서 컴퓨터모의시험전쟁을 벌려놓고 비밀리에 북에 핵폭탄을 투하하는 연습을 벌린것을 비롯하여 정세를 전쟁접경으로 끌고가 당시 《대통령》이었던 김영삼이 바빠맞아 미국대통령에게 제발 《한》반도에 전쟁이 나지 않게 해달라고 손이야발이야 빌었던 비화도 알만 한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이다.

지나해 남북이 모처럼 협상락에 마주앉아 리산가족상봉문제를 협의하던 그 시각에조차 미국은 우리 민족의 통일열망을 안중에도 두지 않고 이남의 직도상공에 전략핵폭격기를 띄워놓고 북의 중심을 핵타격하는 연습을 벌려 놓아 혈육들의 상봉이 아니라 전쟁의 포성이 울리게 하려 하였다.

반만년의 유구한 세월 한피줄을 이으며 살아온 우리 겨례를 북과 남으로 갈라놓은 미국이 민족분열 70년이 되는 이해에 놀아대고있는 꼴은 또 얼마나 우리 민족의 분통을 터트리게 하고있는가. 어떻

게 하나 이해에 남북관계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오려고 북이 통 큰 호소와 제안을 하자마자 수십명의 미국인들을 이남에 급파하고 공개적인 반북배라살포를 하게 하여 대화분위기를 순식간에 얼어붙게 한것도 미국이며 전쟁연습하지 말고 평화화환경을 마련하자는 북의 진정에 《키 리졸브》, 《독수리》연습강행으로 대답하여 《한》반도를 불과 불이 수 있는 위험천만한 지대로 만들고있는것도 다름아닌 전쟁을 즐겨하는 미국이다.

미국때문에 《한》반도에서 평화가 수호되는것이 아니라 핵전쟁위험이 시시각각으로 질어가고있다. 이남국민의 안전이 보장되는것이 아니라 모두 핵전쟁의 재난을 언제 들쓸지 모를 항시적인 위험속에 살고있다. 이 엄연하고 객관적인 현실을 외면하고 《한미동맹》에만 매달려 동족을 배척하고 반대하는 길로 계속 나아가간다면 초래될것은 민족의 재난을 부르는 전쟁밖에 없다.

이남당국은 미국에 대한 지나친 환상을 접어야 한다. 그래도 퍼줄이 퍼줄이지 대양건너의 침략적인 미국이 동족보다 나을수는 없는것이다. 재카나다동포 권수민



남조선미국 《연합군사령부》의 해체를 요구하는 남조선인민들



# 《탈북자》들이 말해주는 두 세상

최근 남조선에서 《탈북자》들의 비참한 생활처지와 관련한 실태자료들이 연속 알려져 내외의 주목을 끌고있다.

나서자란 고향과 자기들을 키워준 부모형제, 조국을 버리고 유혹에 끌려, 혹은 속히우고 랍치되어 남조선으로 내려

##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다》

얼마전 홍콩방송위성TV인터네트는 남조선의 《조선일보》가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취재결과에 대하여 보도하였다.

그에 의하면 남조선에서 살고있는 《탈북자》들의 대다수가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방황하고있으며 초보적인 생계마저 유지하기 힘든 형편이라고 한다.

《탈북자》들은 현재 청소부, 배달부, 접대부 등 품팔이로 겨우 생계를 유지하고있으며 자존심을 완전히 상실한 채 인간이하의 생활을 강요당하고있다. 《탈북자》들 자체가 《심한 좌절감에 사로잡혀 있다》, 《남쪽에서의 생활처지는 상상했던것보다 너무나도 차이나는 고향과 멀리, 후회로 이어진다.》고 자기들의 비참한 삶을 한탄하고있다.

남조선의 통일부도 대다수 《탈북자》들이 청소부 등 임시직업에 고용되고있으며 고된 품팔이로동으로 하루하루 생계를 유지하고있다는것을 인정하였다.

지금 《탈북자》들은 황금만능, 약육강식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온전한 직업도, 거처지도 없이 인간이하의 갖은 천대와 멸시를 받으며 근근히 목숨을 연명해가고있는 형편이다.

## 빛인가, 어둠인가

남조선당국은 《자유》니, 《번영》이니 하며 공화국의 주민들이 남조선에 오면 《삶의 자유》를 누리고 잘살수 있는듯이 요란스레 떠들어왔다. 그 거짓말에 속아, 국제사회에 류포되는 남조선에 대한 광고에 홀려 적지 않은 사람들이 《탈북》의 길에 오르게 되었다.

과연 막연한 환상에 젖어 남쪽에 간 《탈북자》들에게 있어서 남조선사회는 빛의 세상이었는가.

오늘에 와서 더욱 명백해진것이 빛이 아니라 어둠이라는 사실이다.

질이 화려하다고 해서 그것이 사회의 진짜모습은 아니다. 남조선이 걸으로는 화려하게 보여도 그 사회는 돈없으면 살수 없는 사회, 부익부, 빈익빈의 암흑세상이다. 그 세상에 한생토록 몸을 담고고 살아온

간 《탈북자》들. 그들이 지금 처하고있는 비참한 생활처지는 북과 남에 흩어져사는 겨레에게 많은것을 일깨워주고있다.

《탈북자》들은 남조선로동자들보다 주당 평균 2.9시간을 더 혹사당하고있지만 로임은 겨우 절반밖에 받지 못하여 극심한 생활난에 허덕이고있으며 실업률은 일반 남조선주민실업률의 7배에 달하고있다.

특히 초, 중, 고등학교에 다니는 《탈북》 청소년들을 놓고 볼 때 학업중단률이 일반 남조선학생들의 3배(고등학교인 경우 5배)에 달하고 대학졸업률은 7.8%로서 배움의 꿈을 완전히 포기하고있다고 한다.

남조선의 주요일간지인 《동아일보》에는 《맹정한 《한국》 살이 너무 힘들습니다》라는 제목으로 40대의 《탈북》 녀성의 글이 실린적이 있다.

《...남편은 허리수술을 받아 누워있습니다. 아파서 일 못하는 사람은 찬밥신세로 살아야 하는 맹정한 세상살이가 너무 힘들습니다. 희망을 갖고 잘살아 보려고 노력해왔지만 저희들에게는 헛된 꿈이라는것을 느꼈 습니다.》

남조선에서 《탈북자》들이 당하는 정신육체적고통은 이뿐이 아니다. 《탈북자》라고 해서 사람들속에서 온갖 멸시와 천대를 받고 따돌림을 당하며 《이방인》, 《3부류국민》, 《간첩》으로 몰리우고 있는 형편이다.

사람들조차 살기 힘들어 《실업대란》이 일어나고 살게 해달라고 골목우에 올라가 항의 통성하며 삶을 비판하여 자살의 길에 너도나도 나서 《자살률》 1위를 기록하는 땅에서 과연 《탈북자》들이 온전한 삶을 누릴수 있다고 생각한것 자체가 어리석은것이였다.

《탈북자》들은 남쪽세상과는 전혀 다른 세상에서 오래 동안 살았다. 그 세상은 태어나서 탁아소와 유치원, 소학교와 중학교, 대학에 이르기까지 나라가 무료로 키워주고 공부시켜주는 세상이었다. 병이나 기 전에 의사가 가정을 먼저 찾아오는 세상이고 자기는 못 먹어도 남에게 먹을것을 기여주는 사랑과 인정이 넘치는 사회였다. 번쩍거리며 살지는 못했어도 모두가 평온하게 삶을 누리고 앞날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살아온 세상이었다.

그런 세상에서, 그런 제도에서 국가와 사회의 보살핌을 받으며 사는것을 너무나도 평범한 일로 여겨오던 사람들이 너 아니면 나라는 약육강식의 생존법칙만이 작용하는 차디찬 세상에서 과연 살아갈수 있겠는가.

북에서는 누구나 국가와 사회의 보살핌을 받는다. 남에서는 보살피주는 따뜻한 손길이 없다. 그것이 북과 남의 다른 두 모습이다.

《자유세계》를 찾아가 일정한 기간의 《하나원》 생활을 거쳐 사회에 나올 때 《탈북자》들의 손에 쥐여지는것은 얼마간의 《정착금》이라고 한다. 그것을 밑천으로 삼아 남쪽에 발붙이고 이제부터 살라는것이다. 그러나 그 얼마 안되는 《정착금》마저 3국을 경유하여 《탈북자》를 남쪽으로 데려가고 유인해간 인신매매군들에게 다 빼앗기고 남는것은 빈털털이뿐이다.

그 빈손으로 엄청난게 값이 비싸 남쪽사람들도 절반이상이 남의 집세방살이를 하는 남조선에서 몸담을 온전한 거처조차 마련할수 있겠는가.

남조선은 직업이 없으면 굶어죽어야 하는 세상이다. 그래서 해고반대, 비정규직확대반대투쟁이 설새없이 일어나고 있다. 그런데 자본주의현실에 너무나도 적응이 안되고 가진것이 두손밖에 없는 《탈북자》들의 처지에서, 《탈북자》라던 저마다 외면하는 세상에서 직업을 제대로 얻을수 있겠는가. 결과 지금 《탈북자》들이 하는 일은 남이 하기 싫어하는 거처른 일이고 그나마 로임이라는것도 형편없이 적게 받으며 근근히 삶을 지탱해갈수밖에 없는것이이다.

남조선에 유인되어갔다가 다시 공화국의 품에 안긴 《탈북》 녀성 박정숙이 기자회견장에서 털어놓은 이야기의 한 대목이다. 《나는 돈에 팔린 가련한 노예나 다름없었다. 지하철도역과 아파트부도, 승강기청소 등 일거리라던 닥치는대로 하였다. 이렇게 간신히 살아가는데 여기에 걸음걸음 감시와 전화도청까지 끈질기게 계속되어 공포와 불안, 초조감속에 살지 않으면 안되였다.》

그처럼 《환상》과 《희망》을 품었건만 차레지는것은 환멸과 저주밖에 없는 남조선사회를 두고 《탈북자》들까지도 《남조선사회가 사람 못살 곳이라는 재입북자들의 기자회견내용에 공감한다》, 《배고프더라도 생존경쟁할 필요가 없는 북

의 생활이 그림다.》, 《북으로 돌아가는것이 나올것 같다.》라는 말을 내놓고 하는가 하면 자기 형제나 친척들에게 《남조선에서는 살수 없으니 절대 오지 말라.》라고 련락까지

## 처치 곤란한 우환거리

남조선당국에게 지금껏 《탈북자》들은 체제선전의 도구였다. 《탈북자》들에 대해 요란스레 선전하며 남쪽세상을 《살기 좋은 세상》인듯이 묘사해왔다. 그들이 떠나온 북은 사람이 살기 힘든 《지옥》인듯이 신문에서도 혈뜰고 방송으로도 계속 불어대었다. 《탈북자》들을 《통일의 선봉》이라고 추켜올리며 《흡수통일》이 다된듯이 기회있을 때마다 소란스럽게 웨쳐왔다. 지어는 북에 양심을 품고 돈에 환장한 몇몇 인간쓰레기들을 TV와 국제무대에 내세워 반공화국 《인권》소동의 증언자로 써먹기도 하였다.

남조선당국이 《탈북자》들은 북주민들에게 《희망의 메세지》, 《자유의 꿈》을 안겨주는데서 《표본》이라고 하면서 더 많은 공화국주민들을 《탈북》시켜 그 누구의 《붕괴》를 《유도》하려고 반공화국심리모략선전에 열을 올려왔다는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그야말로 《탈북자》들은 체제대결을 추구하는 남조선의 북수당국에 있어서 골라온 《부동기》들이었던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사정이 바뀌었다. 《탈북자》가 오히려 사회의 우환거리, 집권세력의 골치거리가 된것이다.

남조선당국은 그 사회에 대한 극도의 환멸과 함께 앞날에 대한 희망을 포기한것으로 하여 극단적인 범죄와 자살의 길을 걷고있는 《탈북자》들때문에 골머리를 앓고있다.

남조선의 공안당국이 줄여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각종 강력범죄를 감행하고 수감중인 《탈북자》수는 2011년 51명, 2012년 68명, 2013년 86명, 2014년에는 97명으로서 해마다 계속 늘어나고있는 추세라고 한다.

삶을 아예 포기한 《탈북자》 자살률은 남조선주민자살률의 3배에 달하고있어 가족이나 《자살왕국》이라는 치욕의 락인이 찍힌 남쪽세상을 더욱 어렵게 하고있다.

《탈북자사회》의 민심이 날로 더욱 흉흉해지고있는것 또한 남측당국의 골치거리가 아닐수 없다.

보내고있는 형편이라고 한다. 이곳에서는 살수 없으니 제발 그 좋은 세상을 떠나지 말라. 이것이 지금 남쪽사회에 배회하는 《탈북자》들의 피절은 절규이고 한탄이다.

지금 《탈북자》들은 《권력의 노예》, 《쓰고 버려지는 소모품》이라고 자신들의 처지를 한탄하고있으며 근거도 없이 무작정 북을 비방하는것이 남측당국의 모략방송출연요구를 거절해나서고있다. 세상을 속이고 자신들을 속이는 거짓증언놀음에 신물이 나 그 모략국을 없애기 위한 서명운동에 너도나도 나서고있다.

남측당국과 보수언론이 《북에는 자유가 없다.》는 여론을 내들리는데 대해서도 《북에서는 남에서처럼 말을 빙빙 돌려서 하는 일이 없다.》, 《하고싶은 말을 다해도 아무런 문제도 없다.》, 《오히려 마음대로 말할수 없으며 진짜자유를 구속하는 곳은 남조선이다.》, 《북에서는 풍족하지는 못하였지만 마음이 편하고 행복하였다.》, 《다시 돌아가고싶다.》라고 로골적으로 말하고있는 정도이다.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막막하면 자기들이 기대고사는 사회에서 그 사회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저주해나서고있겠는가.

남조선의 언론, 전문가들속에서도 《점점 목소리를 높이는 《탈북자》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당국이 《탈북자정책》을 전면 재검토하여야 한다.》는 아우성이

## 민족의 밝은 미래는

남조선의 력대 보수당국은 공화국이 《개혁》, 《개방》으로 나오고 《핵을 포기》한다면 잘살게 해줄듯이 말해왔다.

리명박 《정권》의 《비핵, 개방, 3 000》이 그것이고 현 박근혜 《정권》이 떠든 《영유권 지원》이요 뒤요 한것이 그러한 선동이다.

《흡수통일》의 망상에 사로잡혀 《통일은 대박》이라는 어설된 말까지 주어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얼마 안되는 《탈북자》들의 운명도 책임 못지고 삶의 벼랑끝에 내몬 남조선당국이 《영유권 지원》이요, 《대박》이요 하는것은 가소로운것이 아닐수 없다.

높아가고있다. 해마다 늘어나는 《탈북자》들의 재입북과 피리를 물고 늘어나는 《탈남자》들로 하여 남쪽세상이 더욱 어수선해지고 여론이 악화되고있는것도 남측당국과 사회의 골치거리가 아닐수 없다.

병든 《자유》의 세계》에 환멸을 느낄대로 느껴 용단을 내리고 북으로 다시 돌아간 《탈북자》들이 2012년말부터 2013년말까지의 한해사이에 공개된것만도 12명에 달하고 알려져있는것까지 합치면 70~80명이나 된다고 남조선언론들은 보도하고있다.

남쪽세상에서 더는 살기 힘들어 다시 돌아가고싶지만 죄지는 몸이라 북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제3국으로 빠져나간 《탈남자》수는 공식 발표된것만 해도 2013년까지 무려 2 000명에 달한다고 한다.

이제 《탈북자》들에게는 남쪽세상이 더이상 《따뜻한 남쪽나라》나 《자유를 품은 풍요의 내 땅》이 아니다. 그러한 인식이 《탈북자사회》에 급속히 전파되고있다고 남조선의 언론들은 보도하고있다. 공개적으로 《남쪽사회는 당국이 광고하고있는것처럼 살기 좋은 곳이 아니다.》라는 《탈북자》들의 후회와 한탄, 저주의 목소리가 높아가는 남쪽세상이다.

오늘에 와서 《탈북자》들은 남조선사회의 《빛》을 보여주는 광고선전물이 아니라 그 사회의 진짜어둠을 만천하에 폭로해주는 생동한 증언자로 되고있다. 반면에 북녘의 사회는 마음편히 살수 있고 인간다운 존엄을 누릴수 있는 삶의 세상임을 《탈북자》들은 자신들의 비참한 처지로 증명해주고있다. 그 증언자가 한두명도 아니다. 그 눈과 귀들을 어떻게 가리울수 있으며 그 입들을 무엇으로 다 봉쇄할수 있겠는가.

《탈북자》들의 비참한 생활 처지는 남조선사회가 인간이 발을 붙이고 살기 힘든 삶의 지옥이며 그 누구의 《인권》을 넘볼처럼 위위대는 남측당국이야말로 인권유린의 장본인임을 고발하고있다. 그것은 또한 《탈북자》들을 한층으로 한 남조선집권세력의 《체제통일》정책의 파산을 선고해주는것이이기도 하다.

인간의 삶을 가장 비참하게 만드는 암흑의 남조선세상은 북녘인민들의 눈으로 본다면 죽음의 세상이다.

《탈북자》들의 비참한 삶은 민족의 밝은 미래가 과연 어디에 있는가를 여실히 증명해주고있다.

본사기자 김명성

남조선에서 박상욱이 대법관후보자로 지정된 문제를 놓고 정계가 소란스럽기 그지없다. 《새누리당》을 비롯한 보수집권세력은 박상욱이 대법관으로서 《적격자》라며 빨리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새정치민주연합을 비롯한 야당들은 그의 자질을 비난하며 사퇴를 요구하고있다. 한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등 법관련단체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박상욱이 후보자로서 임명되기 전에 자진사퇴할것을 강력히 요구하고있다. 이 련 속에서 박상욱에 대한 임명동의안인 《국회》에 제출된지 58일만인 지난 3월 24일 여야당은 박상욱 대법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4월 7일에 하기로 합의하였다.

박상욱이 대법관이 되느냐 마느냐를 놓고 여야가 아귀다툼을 벌인것은 다름아닌 그가 검사로서의 지난 시기 행정때문이다. 알려진바에 의하면 군부독재세력들에게 아부하여 1984년부터 검사생활을

다. 야당을 비롯한 정계와 시민사회단체가 박상욱을 대법관이 될수 없다고 강하게 반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을 비롯한 보수집권세력들이 그를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는데는 그들 나름대로의

이러한 목적에서 《새누리당》을 비롯한 보수 집권세력들은 극우보수분자인 박상욱을 대법관자리에 올려앉혀놓고 저들의 반민족적이며 반통일적인 죄악을 합리화하고 가리우기 위해 발악하고 있는것이이다.

와서 《새누리당》을 비롯한 보수집권세력의 후원에 설맞은 독사마냥 머리를 쳐드는것은 현 당국의 입김을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독선과 불통만을 고집하는 현 보수집권세력에 있어서 자기의 집권

하고 파쇼독재를 더욱 강화하려 하고있는것이이다.

앞으로 있게 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박상욱이 통과되었는가 마는 하는것은 두고볼 문제이지만 현 집권자가 정보원 출신을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임명한것도 부족해 《새누리당》을 비롯한 보수세력을 내세워 파쇼검찰 출신을 대법관으로 올려앉히기 위해 분주당을 퍼우는것을 보면 현 《정권》이 파쇼독재부활을 위해 얼마나 악랄하게 책동하는가를 잘 말해준다.

그러나 민심에 역행하여 파쇼독재를 계속 강화해나간다면 파쇼를 하다가 제명을 다 못살고 민심의 저주를 받을수 있는 이 전 독재자들의 비참한 말로와 같은 신세를 면치 못하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김용철

# 파쇼검사를 대법관으로 내세우는 의도는?

시작한 박상욱은 1987년에 있는 박종철고문살해사건에 대한 수사를 하면서 그것을 대폭 축소은폐하였다. 책상을 《락 치니 억하고 죽었다.》는 경찰의 허위보고를 알고도 묵살한 장본인들중의 한명 이 바로 박상욱이다. 하기에 당시 남조선인민들은 그를 가리켜 《파쇼검사청문회》를 4월 7일에 하기로 합의하였다.

지금 남조선에서는 현 당국의 반인민적악정으로 민심의 분노가 폭발직전에 이르렀다. 정보원을 비롯한 권력기관들을 총동원하여 불법으로 권력을 차지한 현 집권세력은 외세와 야합하여 북침전쟁연습소동과 같은 동족대결만 일삼으면서 한 쪽으로는 수백명의 아이들을 차디찬 바다물속에

실례이다. 이에 절절한 보수집권 세력은 민심의 의로운 항거를 《중북파파세력》의 란동으로 몰아붙이면 서 야수적으로 탄압하는 한편 《법》의 이름을 빌어 그러한 책동을 합리화하려 하고있다. 합법적인 정당을 《중북세력》으로 몰아 《헌법재판소》의 간판으로 강제해산한것은 이에 대한 립증이다.

또 하나의 문제점이 있다. 대법관후보자인 박상욱은 남조선민심이 평한 그대로 권력만 쫓아가는 주대없는자이다. 전두환군부독재시기에 편승하여 파쇼검사의 향락만 누리던 그가 6.15통일시대에 서리맞은 공익마냥 후출근해왔다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이다. 그러던 그가 오늘에

《안보》를 위해 필요한 자는 저들의 의사와 리의만을 충실히 실행해나가는 박상욱과 같은 권력에 아부하는자들뿐이다. 이대로 규탄을 받는 파쇼검사로 락인된 박상욱이와 같은자를 대법관자리에 올려앉혀놓고 저들마음대로 장기집권의 야망을 실현



# 《5.24조치》는 반복대결의 창안품

남조선에서 《천안》호 침몰사건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이 되었다. 해마다 그러하였지만 올해에도 남조선당국은 《천안》호 침몰사건을 《북의 소행》으로 몰아붙이며 온 사회에 반복대결광기, 전쟁분위기를 고취하고있다.

지난 23일 국방부장관 한민구는 《천안》호의 선체가 전시된 해군 2함대에서 《(천안) 호격격 사건은 북의 어뢰공격에 의한 것으로 그 책임이 북에 있는 것은 명명백백한 사실》, 《적의 도발의 지자체를 분쇄해버릴 것》이라는 화약내나는 발언을 했다. 다음날에는 국방부대변인과 《정부》관계자가 줄줄이 나서서 《(천안) 함몰침몰사건은 북의 소행》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한다느니 뭐니 하며 떠들어댔다.

이에 뒤질세라 《조선일보》와 같은 보수언론들도 5년전 3월에 기상청 홈페이지

침몰이 갑자기 급증한 것이 《북이 백령도일대의 조류 자료를 알아내기 위해 한 것》이라는 억지주장을 펼치는가 하면 인간쓰레기들 대북베라를 뿌리겠다고 하는 등 온 남조선땅에 동족대결의 칼바람이 휘몰아치고있다.

《천안》호 침몰사건이 미국과 그에 추종하는 남조선당국이 조작해낸 특대형반공화국모략극이라는 것은 5년세월이 지난 오늘날 만천하에 공개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사건이 발생한 후 남조선당국이 미국의 지령하에 만들어낸 《민군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라는 것이 《은갖 의혹투성이의 종합체》로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은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지금도 《북소행》설의 《결정적근거》로 내놓은 《1번》글체와 어뢰추진체, 《북어뢰》라고 내놓은 《알루미늄유

합금조각》, 《C자형침투경로》설 등 꾸며낸 갖가지 증거들 그자체가 어설되고 빈약하기 그지없는 억지에 불과한 것으로 하여 세인의 조소와 비난의 대상으로 되고있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남조선당국은 《천안》호사건을 구실로 《5.24조치》라는 것을 만들어내어 6.15통일시대에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아래 이루어졌던 북남사이의 인적, 물적, 문화적 교류와 패왕을 전면차단하는 반통일당동을 감행하였다. 악명높은 《5.24조치》로 인해 북남사이의 경제협력사업에 종사하던 수많은 남조선기업들이 파산의 낭떠러지에 굴러떨어지고 해당 기업가들 비롯한 연관된 많은 사람들이 자살의 길을 택하는 등 《5.24조치》가 남조선경제와 북남관계에 끼친 해독적효과는 실로 막대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 현 당국은 리명박 《정권》이 6.15를 부정하고 북남관계를 대결로 다시 돌리기 위해 취한 폐쇄적인 《5.24조치》가 그 누구의 《사과》나 《유감표명》이 있어야 《해제》될 수 있다는 터무니없는 소리만 계속 늘어놓고있다.

《5.24조치》해제에 그 무슨 전제조건을 붙이는 것은 북남관계를 계속 대결로 몰아가려는 홍심발로라고밖에 달리는 말할 수 없다.

남조선당국은 통하지도 않는 억지주장을 할 것이 아니라 동족대결적인 조치들을 철회하는 길로 나와야 할 것이다.

본사기자 김철민



《5.24조치》해제를 요구하여 투쟁하는 남조선인민들



## 날개를 피려는 전쟁부나비

얼마전 일본 수상 아베가 도쿄에서 열린 유엔창설 70년기념행사에서 《일본은 깊은 반성우에 자유롭고 민주적이고 인권을 지키며 법의 지배를 존중하는 국가를 건설했다》고 하면서 《유엔안보리사회 상임이사국의 역할을 맡을 용의가 있다》는 발언을 하였다.

과연 일본이 아베의 말대로 과거를 반성한 제대로 된 나라, 유엔상임이사국의 역할을 맡아할 수 있는 온전한 국가인가.

지난 20일에 발표된 아베내각의 답변은 모순적이다.

식민지지배와 침략에 대한 반성과 사죄를 표명한 1995년 무라야마담화와 관련해 《식민지지배 및 침략의 정의는 여러가지 논의가 있어 대답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것이었다.

오늘까지도 일본은 과거 일본군이 저지른 특대형범죄들에 대해 옳바른 사죄와 배상을 하지 않고 있으며 더우기 세계를 경악케 한 특대형반인륜범죄인 일본군성노예문제를 놓고 오히려 《매춘부》문제로 외곡하고있다.

또 전범자들의 위태가 있는 야스쿠니신자에 대한 정부각료들의 공식적인 참배를 응당한것으로 여기는가 하면 우리 민족의 독도를 저들의 령토라고 표기한 역사교과서를

공공연히 내들리는 등의 역사외곡책동도 로골적으로 감행하고있다.

더우기는 제침의 문을 열기 위해 《자위대》의 해외파병을 합법화하려 하고있다.

지금 일본은 《자위대》의 해외군사활동을 확대하는데 목적을 둔 안전보장법을 제정비한다고 한다.

《자위대》의 해외파병 영구법의 제정, 1999년에 채택된 《주변사태법》의 수정, 1992년에 채택된 《유엔평화유지활동협력법》의 수정을 골자로 하는 안전보장법초안이 일단 법화되면 일본의 해외파병이 훨씬 자유로워진다고 한다.

이를 위해 일본은 2015년도 예산에서 최고 기록인 약 5조원에 달하는 자금을 군사비로 할당하고 최신무장장비를 사들이는 등 《자위대》무력의 강화를 다그치고 있다.

이것은 《대동아공영권》의 망상을 재현해보려는 일본의 야망이 본격적인 실천단계에 들어섰음을 시사해준다.

올해는 과거 군국주의 일본이 패망한지 70년이 되는 해이지만 일본은 아직도 거기에서 쓰디쓴 교훈을 찾지 못하고 침략의 역사를 되풀이하려 하고 있다.

지금 일본의 괴뢰치고 로골적인 군국주의부

활과 재침책동을 로골적으로 부추기고 도와주는 나라가 미국이다.

미국은 일본의 《집단적위권》개정과 안전보장법제정을 구구 환영하고 저들의 최신무기들을 대대적으로 구입하도록 길을 열어주고있다.

지난해 10월 미국은 일본과의 새로운 미일방위협력지침에 관한 중간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미일군사동맹의 《세계적성격》을 부각시켰으며 일본 《자위대》가 미국의 《세계경찰》역수행에 보조를 맞추도록 법적근거를 제공해주었다.

저들의 《아시아중시전략》의 돌격대로 적극 썩먹기 위한 미국의 미일동맹강화책동은 일본으로 하여금 군국주의부활과 해외침략을 위한 군사대국화에 박차를 가하게 하고있다.

패망이후 70년간 꿈틀거리던 군국주의유충이 자라나 전쟁부나비의 날개를 퍼덕이며 날아오를 하늘을 바라보고있다.

하지만 일본은 패전의 역사에서 교훈을 찾아야 한다.

일본속담에도 앞수레가 넘어지는 것은 뒤수레의 교훈이라는 말이 있다.

군국주의부나비가 전쟁을 향해 돌진한다면 종당에는 제가 지른 불에 타죽는 결과만 초래하게 될 것이다.

본사기자 김정혁

## 《한미동맹》 말해 보자

김태룡

상전이 정의의 칼침맞아 피물은 불사취니  
친미보수세력은 저저마다 야단법석  
찢어진 미국대사 그 불썩처럼  
《한미동맹》 찢겨진 넘마될가봐  
복새통을 퍼웠다 란리를 퍼워뒀다

수치와 존엄은 이미  
페기시킨지 오랜 굴종의 화신들  
섬기는 그 솜씨 세상 또 있을가  
상전의 피 몇방울은 그리도 가슴  
터지고  
근 70년 겨레가 흘린  
고통의 피눈물은 흘러가는 물이었  
더냐

《한미동맹》 그것은  
지배와 예속의 혼합물  
상전의 손아래 명줄을 내맡기고  
온 남녘을 통채로 공물로 섬겨버치는  
《한미동맹》 그것은 예속과 굴종의  
대명사

《한미동맹》 그것이 생겨  
얻은것이 있다면  
치욕과 불행, 전쟁위험중대뿐  
잃은것은  
존엄과 자주, 평화적환경

주인 아닌 미국이 《주인》으로 설쳐  
대고  
그 《주인》의 비위를 상할세라 건드  
릴세라  
갖은 추태 부러대는 친미보수세력들  
《석고대죄》, 《사과》를 눈물겹게  
아뢰인  
그 추종과 굴종이 《한미동맹》의  
노란자위

《한미동맹》 그대로 두고서는  
남녘은 영영 현대판식민지  
갈가리 찢어버려야 한다  
《한미동맹》 그 치욕의 보따리를  
남녘인민들을 위해  
민족과 통일을 위해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고고도요격미사일 《싸드》  
의 배비문제를 놓고  
미국과 남조선에서 혼란  
된 소리들이 울려나오고  
있다.

미군부가 남조선에 대한  
《싸드》 배치문제를  
거론하면 미외교당국자들은  
그것을 부정하여 도대  
체 어느것이 진실인지 사  
람들을 어리둥절하게 만  
들고있다.

남조선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다.

청와대와 남조선군부  
가 《(싸드) 도입과  
관련해 (미국의) 요청  
도 없었고 따라서 협  
의된것도, 결정도 없  
다》고 하면서 남조선형  
미사일방어체계를 수립하  
는것이 목적이라고 하지  
만 《새누리당》은 일  
마전에 있는 미국대사  
에 대한 징벌사건이 있  
은 후 《한미공조》를 떠  
들며 《싸드》 도입문제를  
억지로 꺼들다 못해 최근  
에는 북의 《위협》에 대  
비해야 한다며 그것을 더  
욱더 부각시키고있다.

지난 24일에도 《새  
누리당》 대표 김무성  
은 《안보》가 우선이라  
고 떠들면서 남조선에 대  
한 미국의 《싸드》 배치를  
정당화해나섰다.

남조선에 대한 《싸드》  
배치문제를 놓고 미  
국과 남조선에서 이것도  
저것도 그렇다는 식으로  
애매하게 태도를 취하는  
것과 관련하여 주변국들  
의 반발을 가리우기 위  
한 얼림수에 불과하다. 북  
남거리가 1 000km를 조금  
넘는 지역에 거의 배로 되  
는 넓은 지역을 작전반경

미국이 세계적인 미사  
일방어체계가 확산배치  
될 전망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하면서 남조선  
내에서 《싸드》 배치와  
관련한 논란이 일고있는  
것에 주목한다고 밝히었  
다. 그러면서 《싸드》 배  
치와 같은 사태전개는 동  
북아시아지역의 군비경쟁  
을 촉발하는것으로 경각  
성을 불러일으킨다고 강  
조하였다.

이보다 앞서 중국도 남  
조선에 대한 《싸드》 배  
치론난에 강한 우려감을  
표명하면서 그것을 강력  
히 반대해나섰다.

조선반도를 둘러싼 주  
변국들이 남조선에 대한  
《싸드》 배치를 강력히  
반대하는것은 우연한것이  
아니다.

최대 2 000km를 탐지할  
수 있는 레이더체계와 함  
께 수십개의 요격미사일  
을 갖춘 《싸드》는 방  
어에서 순간에 공격으로 넘  
어갈수 있는 무기이다.

만일 이것이 남조선에  
배치되면 중국과 로씨야  
의 넓은 지역이 미국의 작  
전반경에 들어가게 되고  
따라서 해당 나라들에 커  
다란 위협으로 된다. 미  
국이 《싸드》 배치를 북  
세계비난의 목소리를 하  
수인에게 돌리는것과 함  
께 경제문제로 주변국들  
에 관심을 돌리는 남조선  
을 때내어 저들의 손아귀  
에 더욱더 들어치고 침략  
전쟁의 돌격대로 썩먹으  
려는 미국의 음흉한 속심

으로 하는 《싸드》를 배  
치한다는것은 놀이감총  
을 가지고 노는 아이에게  
도 통하지 않는 억지론리  
이다.

이처럼 미국은 세계여  
론을 우롱하면서 가까운  
앞날에 남조선에 대한  
《싸드》 배치를 실현하려  
하고있다.

지난해 남조선에서  
《싸드》 배치에 유리한  
지역에 대한 조사를 진행  
한 미국이 《(한) 반도  
에서 적대국에 대비하는  
게 긴급하게 필요하다》

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문제는 이에 대한 남조  
선당국의 태도이다. 상전  
은 빨리 배척하자고 압박  
하고 주변국들은 그것을  
강하게 반대하고있는  
잠 사이에 끼여 남조선당  
국이 겨우 한다는 소리가  
《(미국의) 요청이나 협의  
결정된것이 없다》는 그  
무슨 《전략적모호성》 소  
리뿐이다. 말하자면 상전  
이나 주변국의 눈치를 보  
아가며 그시그시 살아가  
보자는것이다. 그러나 현  
실은 그렇게 되지 않을것  
이다. 남조선을 아시  
아태평양지역배전략의  
요충지로 삼고있는 미  
국은 저들의 세계제  
패야망실현을 위해 어떻  
게 해서나 남조선에 《싸  
드》를 배치할것이며 하수  
인에 불과한 남조선은 상  
전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  
할것이다. 친미사태와 동  
족대결에 환장한 남조선당  
국에게 있어서 《싸드》  
배비결정의 발표는 시간  
문제라는것이 전문가들  
의 견해이다. 《싸드》  
의 남조선배비는 그렇지  
않아도 불안정한 조선반  
도정세를 더욱더 격화시  
키는것은 물론 동북아시  
아, 아시아태평양지역에  
서 새로운 랑전을 불러오  
는 불씨가 될것이다. 남  
조선에 대한 《싸드》 배  
치문제를 놓고 세계는 미  
국의 침략적본성에 경각  
성을 높이고있으며 아올  
러 코 켜인 송아지마냥  
미국에만 끌려다니는 남  
조선당국의 비굴한 추태  
에 가소로움을 금치 못해  
하고있다.

본사기자 김응철

## 코 켜인 송아지신세

고 떠들면서 현재 제작중  
인 《싸드》를 올해안에  
완성해 이르면 내년 상반  
기에 남조선에 배비하려  
하고있다.

한편으로 미국은 《싸  
드》 배치는 《전적으로  
(한국) 이 결정할 문제  
이다》, 《일정한 재정  
한계내에서 더 많은 미  
사일방어체계를 사들이  
는것이 유리하고 가끔  
적( (한) 미간) 통합된 씨  
시스템으로 운영되는게 적  
절하다》, 《시간이 흐  
르며 상황이 더 악화되  
기 전에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며 남조선에 《싸  
드》 배치를 강박하고있  
다. 《싸드》 도입에 대한  
세계비난의 목소리를 하  
수인에게 돌리는것과 함  
께 경제문제로 주변국들  
에 관심을 돌리는 남조선  
을 때내어 저들의 손아귀  
에 더욱더 들어치고 침략  
전쟁의 돌격대로 썩먹으  
려는 미국의 음흉한 속심

고 떠들면서 현재 제작중  
인 《싸드》를 올해안에  
완성해 이르면 내년 상반  
기에 남조선에 배비하려  
하고있다.

한편으로 미국은 《싸  
드》 배치는 《전적으로  
(한국) 이 결정할 문제  
이다》, 《일정한 재정  
한계내에서 더 많은 미  
사일방어체계를 사들이  
는것이 유리하고 가끔  
적( (한) 미간) 통합된 씨  
시스템으로 운영되는게 적  
절하다》, 《시간이 흐  
르며 상황이 더 악화되  
기 전에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며 남조선에 《싸  
드》 배치를 강박하고있  
다. 《싸드》 도입에 대한  
세계비난의 목소리를 하  
수인에게 돌리는것과 함  
께 경제문제로 주변국들  
에 관심을 돌리는 남조선  
을 때내어 저들의 손아귀  
에 더욱더 들어치고 침략  
전쟁의 돌격대로 썩먹으  
려는 미국의 음흉한 속심

고 떠들면서 현재 제작중  
인 《싸드》를 올해안에  
완성해 이르면 내년 상반  
기에 남조선에 배비하려  
하고있다.

한편으로 미국은 《싸  
드》 배치는 《전적으로  
(한국) 이 결정할 문제  
이다》, 《일정한 재정  
한계내에서 더 많은 미  
사일방어체계를 사들이  
는것이 유리하고 가끔  
적( (한) 미간) 통합된 씨  
시스템으로 운영되는게 적  
절하다》, 《시간이 흐  
르며 상황이 더 악화되  
기 전에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며 남조선에 《싸  
드》 배치를 강박하고있  
다. 《싸드》 도입에 대한  
세계비난의 목소리를 하  
수인에게 돌리는것과 함  
께 경제문제로 주변국들  
에 관심을 돌리는 남조선  
을 때내어 저들의 손아귀  
에 더욱더 들어치고 침략  
전쟁의 돌격대로 썩먹으  
려는 미국의 음흉한 속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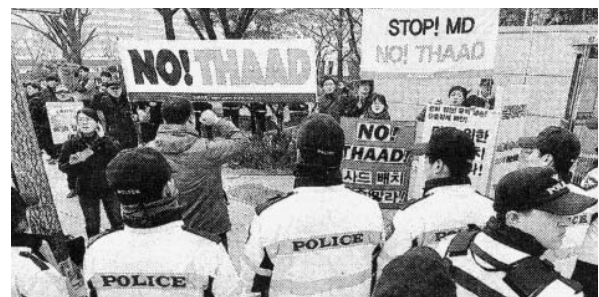
고 떠들면서 현재 제작중  
인 《싸드》를 올해안에  
완성해 이르면 내년 상반  
기에 남조선에 배비하려  
하고있다.

한편으로 미국은 《싸  
드》 배치는 《전적으로  
(한국) 이 결정할 문제  
이다》, 《일정한 재정  
한계내에서 더 많은 미  
사일방어체계를 사들이  
는것이 유리하고 가끔  
적( (한) 미간) 통합된 씨  
시스템으로 운영되는게 적  
절하다》, 《시간이 흐  
르며 상황이 더 악화되  
기 전에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며 남조선에 《싸  
드》 배치를 강박하고있  
다. 《싸드》 도입에 대한  
세계비난의 목소리를 하  
수인에게 돌리는것과 함  
께 경제문제로 주변국들  
에 관심을 돌리는 남조선  
을 때내어 저들의 손아귀  
에 더욱더 들어치고 침략  
전쟁의 돌격대로 썩먹으  
려는 미국의 음흉한 속심

기뿐이라고 하면서 더이  
상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  
위에 매달리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그들은 언명하  
였다.

집회가 끝난 다음 참가  
자들은 《전쟁위기 불러  
오는 (싸드) 도입 중지  
하라》 등의 글들이 적힌  
선전물들을 들고 시위행  
진을 벌렸다.

본사기자



## 전쟁위기 불러오는 《싸드》 도입 중지하라

남조선의 반전평화운동단체가 주장

남조선 인터넷신문  
《통일뉴스》에 의하면  
18일 《전쟁반대 평화실  
현 국민행동》이 서울 광  
화문앞에서 집회를 가지  
고 미국의 고고도요격미  
사일배치책동을 규탄하  
였다.

미군사령부가 국방부조  
차 모르게 《싸드》 배치를  
위해 예비조사를 실시  
한것은 명백히 주권침해  
행위라고 지탄하였다.

이에 대해 당국은 미국  
에 엄중히 항의하고 사죄  
를 받아내야 한다고 주장  
하였다.

국민의 혈세를 짜내어  
《싸드》를 배치할것이  
아니라 조선반도의 평화  
를 위한 대화를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는것이 지금  
박근혜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북침전쟁연습으로  
정세가 극도로 긴장된 지  
금 북을 자극하는 베라살  
포행위가 다시 감행된다  
면 초래되는것은 전쟁위



# 남조선정보원 간첩들 국내외기자회견에서 반공화국정탐모략행위의 범죄진상 자백

미국과 남조선보수당국의 조종밑에 반공화국정탐모략행위를 감행하다가 적발체포된 남조선정보원 간첩들인 김국기, 최춘길과의 국내외기자회견이 26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되었다.

우리 나라 출판보도부문과 총련의 기자들, 외신기자들이 기자회견에 참가하였다.

주조 여러 나라 외교대표들과 대사관성원들이 방청으로 참가하였다.

기자회견에 앞서 국가안전보위부 일군이 남조선간첩들이 감행한 엄중한 반공화국모략행위에 대해 폭로하였다.

그는 최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안전보위부에서는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정탐모략행위를 감행할 목적으로 침입하였던 피뢰정보원 간첩 김국기, 최춘길놈들을 현행범으로 적발, 체포하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이놈들은 미국과 피뢰정보기관의 배후조종과 지령밑에 가장 비열하고 음모적인 암살수법으로 감히 우리의 최고수뇌부를 어찌보려고 날뛰고 악랄한 테로분자들이다.

놈들은 《북인권문제》를 꺼들고 《위조화폐제조》, 《테로지원국》의 모자를 씌워 국제적고립과 봉쇄를 성사시켜보려는 미제와 피뢰적대당의 반공화국모략책동에 적극 가담하였다.

이밖에도 놈들은 미국과 피뢰정보기관의 조종과 후원밑에 갖은 수단과 방법을 다하여 우리 당, 국가, 군사비밀자료들을 수집하러는 뿐 아니라 부르조아생물문화를 우리 내부에 퍼뜨리려고 말하였다.

제반 사실은 미국과 피뢰적대당이야말로 주권국가들을 전복하는데 이끌고난 국가정치테로의 원흉, 반인권범죄의 왕초이며 모략의 총본산이라는것을 다시금 확증해주고있다.

우리 혁명의 수뇌부를 어찌보려고 어리석게 시도하는 무리들은 그가 조직자이건 가담자이건 목인한자이건 또 지주상 그 어디에 있는 모두 우리 국가안전보위기관의 조종경안에 들어있다는것을 알아야 할것이다.

이 기회에 사상적으로 썩고 변질되어 배신과 변절의 길에 굴러떨어진자들, 몇푼의 돈때문에 간첩질을 하고있는 외국국적

자들에게도 준엄한 심판을 내릴것이라는것을 경고한다.

수령결사옹위를 제일생명으로 하는 우리 국가안전보위기관은 혁명의 최고수뇌부를 감히 어찌보려는 놈들에게 조국과 혁명, 인민의 이름으로 무자비한 철추를 내리고야말것이라는것을 다시한번 엄숙히 선언한다.

세계는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과 그 추종자들의 어리석은 망동이 신군조선의 위력, 백두산갈바람앞에 어떻게 풍지박산나며 국가정치테로의 음모가들이 어떤 운명에 처하게되는가를 똑똑히 보게 될것이다.

먼저 지난 10여년간 중국 단둥에서 피뢰정보원의 잠복간첩으로 책동한 김국기가 자기의 죄행에 대해 진술하였다.

나는 1954년 7월 23일 남조선 대전시 동구 룡운동에서 출생하였다.

나는 2003년 9월 1일부터 중국 단둥시에 거주하여 지하교회를 운영하였으며 그후 거주지를 여러번 옮기다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단둥시에서 살았다.

나는 지하교회에서 수십명의 조선족과 사사려행자들을 상대로 반공화국 종교선전을 하다가 2005년 9월 《국정원》첩자이며 반공화국종교단체를 조직 운영하던 김만조목사의 소개로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호텔에서 《순복음교회》 집사로 위장한 황재영을 만나게 되었다.

황재영은 조종국경지역에서 자기의 첩보망을 여러곳에 확보하고 반공화국정탐모략책동을 전문으로 벌려온 《국정원》 부장이다.

그때부터 나는 황재영에게 매수되어 그가 요구하는 자료들을 제공하게 되었으며 그 다음해인 2006년 7월 20일 《국정원》에 《신성국》이라는

첩자대호와 《101번》이라는 번호로 등록되어 직업적인 간첩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내가 저지른 범죄행위는 첫째로, 북의 최고지도부와 관련한 중대국가비밀들을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국정원》에 제공함으로써 미국과 남조선당국의 북에 대한 국가정치테로에 적극 가담한것이다.

2006년 7월 《국정원》의 첩자로 등록된후 내가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첫 지령이 바로 북 최고지도부의 움직임과 관련한 자료를 수집, 제공하라는것이였다.

이러한 지령에 따라 2009년 11월에는 북 최고지도부의 중국방문시 통과한 어느 한 간이역과 그 주변을 찍은 사진, 건강상태와 관련한 중대비밀자료들을 수집, 제공하였다.

2010년 4월 28일경 황재영의 긴급호출을 받고 단둥에 있는 안씨와 함께 서울에 나가 그를 만났다.

황재영과의 대화를 통해 안씨가 《국정원》과 이미 전부터 련결되었다는것을 알게 되었고 그 이후에 첩자대호가 《김과장》이며 등록번호는 《100번》이라는것, 《국정원》 내부에서도 《고급첩보원》으로 소문이 난 사람이라는것을 알게 되었다.

그때 황재영이는 나와 안씨에게 북 최고지도부의 중국방문관련비밀을 수집하라는 지령과 각각 3000US\$의 활동비, 연락용은어가 기록된 손전화기를 주었다.

그러면서 이번 지령은 《국정원》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크게 기대를 걸고 있던 거액을 받고 최고의 실적을 올리게 될것이라고 하였다.

5월 2일 안씨가 이미전에 매수한 현지인물들로부터 수집한 북 최고지도부의 5월 중국방문날자와 경로, 열차시간 등의 자료를 넘

겨받아 황재영에게 제공하고 안씨는 5만US\$, 나는 2만US\$를 받았다.

또한 그해 8월 북 최고지도부가 철도로 중국을 방문할수 있다는 지령을 받고 안씨와 함께 국경지역에 가서 중국측의 철도공사정형과 북측철길주변을 촬영한 후 5월과 같은 방법으로 북 최고지도부의 8월 중국방문날자와 열차시간, 출발 및 도착역 등의 정보를 수집하여 제공하고 그 대가로 안씨는 5만US\$, 나는 3만US\$를 받았다.

내가 《국정원》의 지령을 받고 10여년간 집요하게 벌린 북 최고지도부와 관련한 자료수집활동은 국가정치테로행위로서 가장 엄중한 범죄라는것을 인정하며 이에 대하여 북에 정식으로 사죄한다.

그는 계속하여 자기가 저지른 죄행은 둘째로, 단둥지역에 첩보망을 구축하고 북의 당, 국가, 군사비밀과 내부실태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수집, 제공하여 미국과 남조선당국의 반공화국적대행위에 적극 추종한것이며 셋째로, 북을 내부로부터 와해전복시킬 목적으로 북에 대한 모략선전물을 제작, 류포하고 종교선전을 한것이라고 하였다.

이어 김국기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였다.

다음으로 중국 단둥에서 살면서 반공화국적대행위를 하던 피뢰정보원 간첩 최춘길이 자기의 범죄행위에 대해 진술하였다.

나는 1959년 9월 19일 남강원도 춘천시 효자동에서 출생하였다.

나는 2003년에 남쪽을 떠나 중국에서 살다가 2011년 5월경 심양에서 국제 결혼 중개업을 하던 남쪽사람들인 전종구, 오준현을 통해 《국정원》요원 《김과장》을 소개받았다.

그해 7월부터 《김과장》의 첩자로 흡수되어 《고선생》이라는 대호와

함께 공작금으로 매달 중국돈 5 000 RMB, Y(원)씩 받았다.

또한 팔동장사군으로 위장하고 중국에 드나드는 《국정원》요원인 박성화, 단둥에서 목사로 활동하는 《국정원》관계자 김용하, 장사군으로 위장하고 중국에 오군하는 《국정원》관계자 오명균과의 련계밑에 공화국의 주권을 침해하고 제도를 붕괴시킬 목적으로 공화국공민과 화교들을 포섭, 리용하여 반공화국정탐모략행위를 감행하였다.

그러던중 지난해 12월 30일 공화국경내에 불법침입하여 귀금속을 중국으로 빼내려다가 현장에서 북국경비대에 단속, 체포되었다.

먼저 공화국을 반대하는 정탐행위를 한데 대해 말하였다.

2011년 8월부터 2012년 10월기간에 《국정원》요원인 《김과장》은 내가 북과 립접한 단둥에서 생활하는것만큼 북과 관련한 정보는 사소한것이라도 놓치지 말라, 특히 공화국 최고지도부의 움직임과 관련한 정보수집에 총력을 집중하라고 지시하였다.

2014년 5월경에 《국정원》관계자 오명균도 나에게 공화국 최고지도부와 관련된 자료들을 최우선적으로 수집, 보고하라고 하였다.

이 지령을 집행하기 위해 내가 포섭, 리용하던 북주민들과 화교를 선정하고 돈을 미끼로 포섭하여 알아내려 하였으나 끝내 실행하지 못하였다.

또한 공화국의 군사비밀 자료들을 수집할데 대한 지령을 받고 2012년 3월 중개업을 하던 남쪽사람들인 전종구, 오준현을 통해 《국정원》요원 《김과장》을 소개받았다.

2012년 10월부터 2013년

4월사이에는 념변지구의 흠을 파올데 대한 지령을 받고 3명의 북주민들에게 과업을 주었다.

특히 화교 윤 모를 념변에 수차에 걸쳐 과견하였으며 그에게 공화국의 군수공장과 공장책임일군들의 자료들을 수집하게 하였고 비행기격납고, 비행장, 신행당크들을 촬영하라고 하였다.

다음으로 나는 공화국을 모해하는 모략행위를 감행하였다.

나는 2012년 5월경 《국정원》요원 《김과장》으로부터 북을 국제무대에서 《위조화폐제조국》으로 몰아가기 위해 북에서 만든것이라고 증명할수 있는 위조달러를 수집해보내라는 지령을 받았다.

같은해 10월말경에 《김과장》은 나에게 《대선》이 립박했는데 《새누리당》이 재집권하려면 충격적인 《대북사건》을 일으켜야 한다고 하면서 《최명확간첩사건》이라는것을 조작하는데 필요한 증거들을 시급히 만들어보내라는 지령을 주었다.

나는 《탈북자》 최명확이라는 사람이 북보위부에서 파견한 《공작원》이라는 자료를 날조하여 보내 주었다.

뿐만 아니라 반공화국 《인권》모략선전에 써먹을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공화국공민 1명, 화교 1명에게 북에서 《지하교회》가 운영된다는것을 증명할수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 찍어오라고 하면서 만일 공화국에서 찍기 힘들면 중국에서 찍어도 되는데 공화국이라는것이 꼭 알리게 조작촬영해야 한다고 강조해주면서 촬영기재와 함께 각각 중국돈 3 000 RMB, Y(원)씩 주었으며 찍어오면 돈을 더 주겠다고 하였다.

나는 공화국내부를 와해시키고 북주민들을 유인하여 남조선으로 끌어가려는 범죄행위를 감행하였다.

내가 지금까지 북을 반대하여 저지른 모든 행위들은 공화국에서 절대로 용서받을수 없는 범죄들로서 그에 대해 천백번 깊이 사죄하며 그 어떤 처벌도 달게 받아들일것이다.

이어 최춘길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들이 있었다.

기자들의 질문이 끝나자 최춘길은 같은 민족이지만 동족을 대하는데 있어서 남과 북, 북과 남이 너무도 판이하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나는 중국 심양에서 5년, 단둥에서 7년동안 살아오면서 많은 공화국공민들을 만나보았지만 그들로부터 느낀것은 그 누구도 남쪽에 대해 모략을 꾸미거나 나쁜짓을 하지 않았고 더우기 나쁜 말도 하지 않는다는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중국에 나와있는 많은 남쪽사람들은 북에 대해 좋지 않게 생각하고 악의에 찬 반공상과 심지어 북을 반대하는 대결모략행위를 하고있다.

이것은 남쪽 《정부》가 그들에게 동족대결의식을 불어넣고 반공화국적대행위에 끌어들이고있기때문이다.

그러나 동족을 반대하는 대결행위에 가담해야 종당에 얻을것이란 나와 같은 운명뿐이며 미국과 남조선당이 추구하는 북의 《변화》와 《붕괴》란 어리석은 망상에 불과하다.

끝으로 최춘길은 지금이 시각에도 중국에는 공화국을 반대하는 적대행위를 하고있는자들이 적지 않은데 그들은 저들의 행위가 얼마나 부질없는것인가 하는것을 똑바로 명심해야 할것이라고 하였다.

기자회견이 진행되는 동안 적발체포된 피뢰국정원간첩들의 반공화국정탐모략행위를 보여주는 사진자료들과 증인들의 진술을 수록한 편집물이 상영되었다.

본사기자



남조선정보원 간첩들 국내외기자회견에서 반공화국정탐모략행위의 범죄진상 자백 (김국기, 최춘길)

## 테로광신자들을 펄펄 끓는 쇠가마에

두놈의 간첩들이 감행한 반공화국모략행위에 대한 기자회견을 보고나니 끓어오르는 분노와 증오를 참을수 없다. 해마다 벌리는 전쟁연습, 뼈라살포 그것만으로도 미제와 남조선피뢰들의 사동뼈를 분질러놓고싶은 심정인데 감히 어중이떠중이들을 들이밀어 우리의 최고수뇌부를 어찌보겠다고 날뛰고있으니 주먹이 떨

리고 피가 끓는다. 최고수뇌부는 우리모두의 존엄이고 운명이다. 적대세력의 행위야말로 천벌을 받고도 남을 특등죄악중의 죄악이 아닐수 없다. 이런 행위를 어찌 용서할수 있단 말인가. 당장 그 모략의 본거지들을 짓무개버려야 한다. 우리 제철소용광로의 쇠물을

미제와 역적패당의 더러운 몸통이에 통째로 쏟아부어 죄악의 대가가 얼마나 뼈저린것인지 똑똑히 알게 하고싶은 심정이다. 다시는 그런 자그마한 생각도 할수 없게 모략과 테로광신자들을 펄펄 끓는 쇠가마에 처넣어야 한다. 평양강철공장 노동자 립성철

## 추호도 용서 못할 죄악중의 죄악

미제와 역적패당이 테로분자들을 과견하여 감히 우리의 최고수뇌부를 어찌보려고 오래전부터 흠계를 꾸며온 사실이 날날이 폭로된 지금 온 나라 군대와 인민이 분노로 치를 떨고있다. 테로를 본업으로 하고 다른 나라 국가수반들을 수없이 레로하여 살해한 악의 제국 미국이 이제는 피뢰적대당을 내세워 우리의 최고수뇌부에 대

한 테로음모를 꾸미고 실행에 옮기려고 별의별 책동을 다하였으니 온놈의 피가 거꾸로 치솟는다. 우리의 최고수뇌부는 그 누구도 다칠수 없는 선군조선의 심장이며 민족의 운명과 미래이다. 공화국의 군인이 혁명의 수뇌부와 운명의 피줄기를 잇고 어떻게 받들고 결사옹위해왔는가는 적대세력자신들도 잘 알것이다. 지구가 깨지면 깨졌

지 선군조선의 운명, 민족의 최고존엄은 그 누구도 건드릴수 없다. 만약 그 추호도 용서받을수 없는 특대형 테로범죄를 조금이라도 실행하려한다면 그 순간 온 남녘이 불바다가 되고 위싱턴이 재가루가 되는 가장 비참한 파멸의 순간이 된다는것을 적대세력, 테로음모자들은 똑바로 알아야 한다. 조선인민군 군관 김응국